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頁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메이데이運動으로본世界相
—排他的國民主義時代—

一

五月一日은 勞働祭日이므로 世界各國의 勞働者들은 各各 그 힘잇는대로 이날을 紀念하고 祝賀한다。이날을 世界各國의 勞働者가 勞働祭日로 決定한것은 一八八九年 第二인터내슈낼大會에서 翌一八九〇年 五月一日은 各國 勞働者가 勞働祭日로 紀念하자고 決議한데서 비롯하얏거니와 五月一日을 特히 世界的 勞働祭日로 決定한것은 一八八四年 米國全土의 各種勞働團體가 一八八五年 五月一日을 期하야 八時間勞働의 實現을 目的한 總同盟罷業을 決行하거로 決議하고 翌一八八六年 五月一日 全米勞働者가 一齊히 勞働을 中止하고 『八時間勞働、八時間休息、八時間敎育』을 標語로 一大示威運動을 하다가 莫大한 犧牲者를 내엇슴에 起因한다。如何間 五月一日은 世界各國의 勞働祭日로서 世界가 公認하는 날이오, 또 實際로 勞働者가 自家의 生日과 가티 紀念하는 날이므로 이날의 勞働者의 狀況如何는 世界勞働者의 地位 惑은 盛衰를 測定하는 바로메터가 된다。

二

그런데 五月一日 午後四時까지 本社에 到着한 各地의 報道는 오즉 메이데이運動의 豫想에 끄치고, 經過에 對해서는 東京、大阪을 除하고는 아즉 詳報가 업스나 그 豫想만 보드래도 紀念運動이 從來의 그것과 顯著히 變化되것을 알수잇다。

첫재 東京、大阪의 示威運動만 보드래도 過去 한창 勞働運動이 膨脹햇든 昭和二、三年頃은 東京에만 示威運動의 參加者가 四萬을 突破하고, 左右翼의 區別이 업시 한列에 서서 갓섯스나 今年가튼해는 東京서만 左右兩派의 出發地가 다르고 그 參加者도 兩者 合하야 六千餘人이란 從來에 比하야 閑散하기 짝업는 現象을 나타냇스며 大阪도 參加者 一萬人이라하나 從來보다 적은것이 事實이다。

三

이러케 멀리 歐米에 눈을 轉하면 一層 그 差異잇슴을 發見할수 잇스니 蘇聯에 다음가게 盛大하든 伯林의 勞働祭는 나치스 政府의 完全한 手足이 되어 會集者 十五萬이 全部 나치스政府 社讚에 餘念이 업스며, 左右兩派로 分立抗爭하야 政界의 癌이 되엇든 佛國社會主義左右兩派는 合同하야 나치스 獨逸의 排擊에 一致하얏다。勞働者의 國家 蘇聯이 大大的으로 쏘聯軍의 分列式을 行하는等 徹底히 이날을 紀念하는것은 別로 新奇할것이 업스며, 勞働黨의 失脚以來 五年間 自重과 沈默을 守하든 英國에 選擧期를 압두고 多少活氣를 띄엇든것은 事實이나 이것으로써 勞働祭의 盛況을 말할수는 업다。米國이 戰爭反對 N、R、A의 批判을 綱領으로 내세워 興奮을 띄웟스나 이것으로 世界的 反動氣分을 淸算키는 不足하다。世界各國은 國民主義 파씨즘에 물려싸혀 勞働運動도 이에 感服되거나, 同化되어 勞働運動本來의 姿勢를 못보게된 것은 近年의 메이데이의 特色이다。

四

世界 各國의 勞働運動이 이가티 萎縮되게된 理由는 勞働運動 自體의 弱化에도 原因이잇스나 大體로 國民主義 파씨즘이 擡頭하게된것이 主因이될것이다。獨逸이 一九三三年一月 나치스의 政權掌握以來 英國이 一九三一年九月 勞働黨內閣의 失脚以來 米國이 一九三三年 루즈벨트大統領 就任以來 歐洲諸小邦이 이와 前後하야 反動主義에 傾하게된것은 顯著한 現象이어니와 이政治的 [illegible]의 基因이 主로 經濟的 原因에 基한것은 움직이지 못할事實이니 이 起源을 찻는다면 一九二九年 米國에서 始作한 經濟恐慌을 들지안코는 안된다。이리하야 經濟的 對策으로서의 인플레이숀과 政治的、軍事的 政策으로서의 파씨슴의 擡頭及膨脹은 自然의 形勢라할것이다。果然 메이데이의 量的及 質的 變化는 世界相을 말하는 [illegible]것이다。

獨逸新艦隊計畫
戰艦二隻과潛水艦大量建造
歐洲海軍勢力分野에大變化
英海軍記者『빠』氏도立證

【電通倫敦卅日發】獨逸海軍再建에 關하야 種種臆測이 亂飛하는데 信憑할만한筋의 情報를 綜合하면 二萬七千噸級前後의 戰艦二隻을 中心으로한 獨逸新艦隊編成計畫은 이미 樹立되엿는 事實이 確實하다고 解釋되며 潛水艦의 大量建造와 相伴하야 玆二、三年後의 歐洲海軍勢力分野에 一大變化는 必至라고 豫想되게되엿다 그리고 데일리텔레그라프記者 빠이워터氏가 蒐集한 情報도 또한 此를 立證하야 左와 如히 述하엿다

一、獨逸은 今後二個年後에 十一萬噸以上의 建艦을 計畫하고잇다

一、右計畫은 二萬七千噸十四吋砲十二門 搭載戰艦二隻、一萬噸巡洋艦三隻、千四百噸大型驅逐艦十六隻을 包含하고잇다

一、潛水艦建造는 特히 急히하고잇는바 今秋까지에 十二隻의 潛水艦이 就役될터이다

一、二萬噸級二隻、一萬噸級一隻을 中心으로 한다는 지오르날데 다라리아紙의 報道는 多少 誤謬는 잇슬망정 지나치게본 傾向이잇다고 海軍側에서 말하고잇다

英保守黨閣僚 國防國債力說

【倫敦三十日發聯合】獨逸政府가 依然再軍備에 着手한 結果 英國은 陸海空三軍에 亘하야 國防整備擴充을 期할必要에 切迫되엿는데 保守黨出身閣僚는 國防國債를 募集하야 國防의 安全을 期하여야할것이라고 力說하고잇다

羅馬會議에 獨逸은不參加

【聯合伯林廿八日發】國際聯盟理事會의 問責決議에 對한 抗議的聲明以來 沈默을 守하고잇든 獨逸政府는 最近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墺太利獨立保全問題에 關하야 非公式折衝을 開始하엿다고 傳聞되다 右獨逸政府의 行動은 聯盟決議에 對한 態度表明以來 獨逸政府가 直接으로 歐洲問題에 着手한 最初의 外交工作인데 獨逸政府는 右照會에 對한 뭇솔리니首相의 說明에 不同意란뜻을 闡明하엿다고 信憑되므로 獨逸政府가 將來羅馬會議에 不參加할것은 드디어 決定的의것이라고 생각된다

各方面影響考慮 對抗軍擴保留乎
獨海軍再建과 英立場에 對한
外務省當局觀測如此

【東京電話聯合】獨逸의 海軍再建에 關하야 英國政府는 倫敦條約第二十一條의 에스카레터 條項을 發動하야 對抗하리라는 報道가잇는데 右에 關하야 外務當局은 左와如한 觀測을 下하고잇다

一、英國政府는 獨逸陸軍의 再整備에 對하야 一九三三年二月에 此를 認定하엿는데 當時海軍에 對하여도 獨逸이 要求하고잇는것을 理解하고잇슴으로 海軍軍備再建에 反對할 理由를 發見치 못할것이다 따라 五月에 行할 英獨海軍會商의 結果 獨逸을 어느 程度까지 制裁할수잇슬는지 알게될터임으로 그때에 態度를 決定할것이다

一、에스카레터 條項이라는 것은 『他國의 軍備增加에 依하야 脅威를 밧는 境遇에 適用할』이라고 括弧內에 條約上 認定되엿는데 獨逸의 潛水艦 巡洋艦 驅逐艦을 製作한다는 것으로 英國도 亦是 條約上 權利를 利用하야 對抗하리라고 생각되지 안는다 英國은 그 軍備擴張이 各方面에 及할 重大影響을 考慮하야 愼重對處할 方途를 考究하리라고 생각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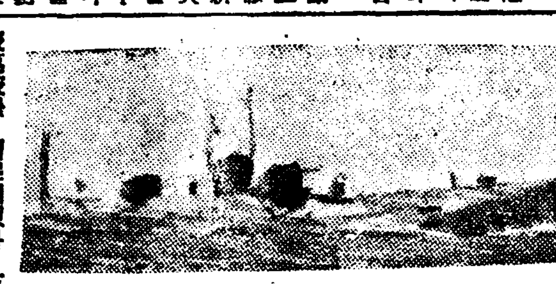
歐洲政局混亂과 日本立場

【東京電話聯合】獨逸海軍의 再建은 英國에 大脅威를 加하야 英國은 佛伊兩國과 갓티 三國共同戰線을 取하야 對策을 講究하기爲하야 運動하고잇스나 獨逸海軍의 再建을 抑壓하기는 困難視되여잇고 近近 行할 豫定인 英獨會商도 별로 成果는 바랄수업고 英國은 最後的對策으로 倫敦條約 第二十一條에 基하야 增艦計畫을 不得已 樹立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英國이 該條約을 發動하게되면 次期軍縮會議의 前途는 多難하다 그러나 日本은 歐洲政局의 混亂에 超然히 지안코 愼重靜觀하고잇스며 다만 英國이 倫敦條約 第二十一條를 發動할境遇 다시 態度를 表明할 方針이다

八日樞府本會議서 內審關係勅令可決

【東京電話聯合】內閣審議會組織에 伴하는 調査局官制案任用勅令案은 來八日의 樞府本會議에서 可決決定하기로 樞府의 意見이 一致하엿다

歐洲不安益增大
獨海軍再軍備와 英帝國의煩悶
★ 洪陽明


(사진은大戰當時聯合國側의 肝膽을서늘케하든 獨潛水艦U九號)

三月十六日『라이히』의 總帥히틀러氏가 더진 再軍備宣言의 巨大한 投石은 歐洲政局에 일즉이 업든 千波萬波를 이르키엇다 英、佛、伊 諸等 主要國의 首腦部은『스트레자』로『쥬네브』로 頻繁한 外交折衝에 寧日이 업고 無條件하면서도 平和로운『제스추어』로 假裝한 外交家들의 活動裡面에잇서 各國의 軍事諜報機關은 칼날을갈듯이 緊張하야서로 軍事施設에 對한 情報를 蒐集하기에 汲汲하다 一九一四年歐洲大戰勃發以前數年前과 갓흔 陰惡한 妖雲이 歐洲를 덥고잇다는것이 各國新聞이 歐洲現下情勢에서 밧은 印象이다 그러나 獨逸의 再軍備가 陸軍에 잇는限 北海를 隔하야잇는 島國英國과 瑞西墺地利를 가운데노코『알프스』에 依하야 阻隔되여잇는 伊太利에 對하야는 그것이 地理的으로 直接『라인란드』에 依하야 緩衝連接되고 政治的으로는 正面으로 對敵的 立場에 잇는 佛國이 感하는것과 갓흔 脅威를 感하지 안을뿐안니라 엇던點으로는 英國은 그 傳統的인 大陸勢力均衡政策上 歐洲의 覇權을 쥐고잇는 佛國보담 너머나 [illegible]한 獨逸現代의 勢力을 强化하는것은 오히려 실그머니 愉快하게 생각할수도잇는 일이엿든것도 否認할수업는 事實이엿다 英國側으로서보면 三月卄四日사이먼外相의 伯林訪問期日을 몃날압헤 남겨노코 더욱이 獨逸이 聯盟에 復歸하면 베르사이유條約第五編 軍事條項은 廢棄한다고 二月三日의 倫敦宣言에서 公表하여노흔는데 英國의 歐洲平和機構再建斡旋者로서의 功績을 나타낼機會를 업시하여바리고 獨逸이 突然히 一方的으로 軍事條項廢棄宣言을 發한것은 그手續이 나뻣다는것이 遺憾되엿든 以外에는 佛國과 가티 激忿할 理由는 업섯다 할것이다 그리고 英國政治家의 傳統的觀念인 條約尊重論의 立場에서 倫敦宣言에 依한 베르사이유條約 一方的廢棄否認이란 義務感에 加하야 獨逸의 同條約軍事條項의 一方的廢棄라는 非正常的方法採擇은 英國으로하야곰 佛國과 함께 聯盟理事會의 佛國側提案 獨逸問責案에까지 積極的으로 參加케 맨들엇다는것은 記憶할일이다。그러치마는 이것으로써 마는 英國이 獨逸에 對한 對立感을 强化하얏다고볼수는 업섯든것이다。伊太利가 佛國과 對獨步調를 함께한 나치스獨逸의 實力强化는 自然그 南進政策『獨墺합병』(안슐루스)을 招致할임으로써 이것을 阻止키爲한 것은 周知하는바이다

◇

그러나 獨逸이 軍事條項廢棄를 海軍에까지 擴大하야 潛水艦十二隻을 含한 新建艦計畫을 進行하고잇다는 事實이 判明되자 英國의 態度는 一變한 感이잇다。英獨海軍會商을 開催하야 海軍本會議에 英獨兩國을 招請할것을 前提로 對英三割五分의 海軍軍備를 許容할것을 斡旋할心算을가지고잇는터에 一方的으로 海軍建艦計畫을 進行함에잇서서는 英國이 絶對的으로 佛伊獨三國에 對하야 얼마만콤 保有하여야되겟다는 艦艇勢力量配定에 重大한 差異를 生할뿐아니라 이에 對應키爲하야는 獨逸建艦數만콤 新建艦計畫을 세우지아니하면 絶對的으로는 英國海軍勢力은 크게 減下케되는것임으로 英國朝野는 大緊張하야 英佛伊共同抗議를 協議하리라는 等 인제는 根本的으로 獨逸의 條約蹂躪行爲를 革正하여야되겟다는 等 近日의 倫敦通信은 從來에 미지근한 對獨態度에서 突變하야 激烈한 反獨的인 論調로 充滿되는것을 發見할수가잇다。獨逸의 爆彈宣言에 나타난바에 依하면 獨逸海軍은 總噸數四十萬噸範圍內에서 艦種은 自由로할것을 主張하고잇스니 이 噸數는 現在佛伊兩國의 艦齡內 艦艇總噸數에 該當하는것이다 그런데 英國海軍政策은 그 全世界에 널니퍼저잇는 自治領과 殖民地와의 通路를 保護하고 北海와 地中海의 通行을 保障함에는 적어도 佛伊를 合한 二倍即約百六十萬噸의 艦艇을 保有하여야된다는 主張인데 現在百十五萬八千餘噸에 滿足하고 華府倫敦條約에 依하야 一九三六年末까지 補充할수잇는 十三萬餘噸의 艦艇建造는 佛伊와 協調에 依하야 그것을 될수잇는대로 小規模로 하려고 하고잇든터인데, 獨逸이 이제 佛伊程度의 海軍을 가지게된다면 英國은 그대로 잇슬수업는 딜렘마에 빠지게되는것이다

◇

周知하는바와 가티 獨逸은 베르사이유條約 第五編軍事條項에 依하야 陸軍을 十萬以內 空軍은 禁止當한것과 한가지로 그 海軍條項(第百八十一條)에 依하야 單히 一萬噸以內의 戰艦六隻、輕巡洋艦六隻 驅逐艦十二隻、水雷艇十二隻밧게는 保有할수업고 潛水艦은 包含하지못하게 되엿임으로 剩餘의 一策으로 一萬噸級戰艦을 가장效果的으로 하기爲하야 最新技術을다한 俗稱 포케트戰艦『도이취란드』『꾀니히스베르히』를 製作하야 그 性能에잇서 世界를 놀내게한것은 記憶되는바이다 그런데 今回 獨逸이 再軍備宣言後 前記海軍條項을 眼中에두지안코 드데여 新建艦計劃을 發表함에 니르러서는 그러지안어도 停頓狀態에잇는 海軍軍縮問題는 아주 休紙쪽이 되고말고 獨逸과 他方의 敵이되고잇는 蘇聯의 빨틱艦隊再編成을 促進하는同時에 이는 反射的으로 英佛伊三國의 現在以上의 建艦計劃을 招來하야 軍事費中에서도 가장 浪費的인 海軍擴張의 膨大는 各國納稅者의 목덜미를 잡어놀으게될것은 疑心할餘地가 업는것이다 英國 델레그래프紙의 有名한 海軍記者、빠이워터氏의 調査에 나타난바에 依하면 現在獨逸이 進行하고잇는 海軍建艦計畫은 二萬七千噸級戰艦二隻 一萬噸級巡洋艦三隻 驅逐艦十六隻 六百噸級潛水艦十二隻을 包含하고잇다는것으로 이것은 二年內에 完成할것으로 그 完成時는 過去베條約限度로 完成한것과 合하야 거의 佛國海軍勢力에 達케된다는 것이다 이中에 잇서서도 特히 潛水艦建造가 가장 英國의 神經을 刺戟하는 理由는 歐洲大戰當時의 英獨海軍作戰을 回想하면 잘알수잇다 歐洲大戰勃發當時 獨逸主力艦은 英國의 十에 對한 六의 勢力에 不過하엿지마는 獨逸은 潛水艦에 依한 奇襲作戰에 依하야 于先 主力艦의 勢力을 減殺하야 能히 均衡된 立場에서 뎀스河口를 엿보기까지에 니르럿든것이다 特히 그 初頭에 裝甲巡洋艦 압킬(一萬二千噸)號外二隻이 和蘭沿岸通過中 獨潛水艦U九號의 奇襲을 맛나 一擧에 沈沒當하야 千六百名의 乘組員을 海底에 水葬한 切齒할 記憶을 생각할때는 獨潛水艦隊에 依하야 가장 애먹은 英國으로서 咀呪치아니치못할 일이 될것이다 더욱이 獨逸의 潛水艦은 過去가장 發達된 技術을 자랑하는것임으로 空界의 飛行機와 함께 水上의 脅威의 的인 獨逸潛水艦作戰의 將來危險을 重大視함은 無理가 아닐것이다。

一事一言
平壤의明日
長白山人

朝鮮에서 平壤처럼 榮光스러운 都市는 업다。平壤은 王儉의 터요 高句麗의 榮光스러운 歷史의 本舞臺다。高句麗만은 漢族을 세번이나 크게 꿀리고 滅亡할 때에도 玉으로 부서젓다。

그러나또 平壤처럼 不幸한 都市도 업다。位置가 軍事上의 要衝에 處하엿기때문에 멀리는 壬亂、丙亂、갓가히는 日淸의 役에 언제나 戰禍의 目標가 되어서 戰亂이 잇슬적마다 쑥밧이 되엇다。半萬年의 歷史를 가진都市 平壤에 古文化가 傳하지못함이 이때문이다。

그러나 天惠의 平壤은 쑥밧이 되엇다가도 번번히 勇敢하게 再生하엿다。

더구나 今日의 平壤은 京義本線、鎭南浦線、平元線等 實로 四通八達의 鐵路의 交叉點인데다가 計畫中인 大同江의 浚渫과 滿浦、平元兩鐵路網의 完成이 오는 날에는 朝鮮交通網의 中樞인 感이잇는 데다가 平壤附近에는 거의 無盡藏이라할만한 石炭其他의 鑛山이잇스니 商工業都市로의 모든 條件을 具備하엿다할것이다。

거다가 進取氣象으로 빼어난 平壤人은 벌서부터 洋襪工業、고무工業、帽子工業等製造工業에 잇서서 朝鮮의 先驅요 中心이 되엇고 朝鮮人人口十三萬에 벌서 十萬圓以上의 財産家二百五十人以上을 算한다하며 三年來 市街地價의 繼續的 暴騰은 全혀 朝鮮人側人口增加와 企業增加의 結果라 한숙 商工業都市로의 平壤의 明日은 實로 希望이 洋洋하다 할것이다。

이 天惠、이 富力、이 進取的 精神에 만일 聰明健實한 組織力을 加한다하면 平壤의 商工業은 勿論이어니와 人口에서나 富力에서나 朝鮮에 冠冕될 날이 不遠할것 갓다。거다가 만일 朝鮮的인 文化까지 이中에 새움을 發한다 하면 그 얼마나 榮幸한 일이랴。平壤人의 努力과 聰明한 精神이 古平壤의 偉大와 榮光을 再現하기를 祝禱하자。

非常時對外工作
通信統制强調
廣田外相訓示重視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은 來三日 首相官邸에 열리는 地方長官會議席上에서 最近의 一般外交問題에 關하야 訓辭를 行하기로되엿는바 外相이 從來의 境으로 通信統制問題에 言及할것은 極히 重視되고잇는데 外相은 먼저 現下 多難한 國際關係下에 잇서서 이 打開를 爲해서는 國民全體의 一致協力을 切望한 後 機關의 發達과 相應하야 所謂 宣傳非常時를 出現하야 故意로 否曲된 通信宣傳이 世界를 縱橫하야 進展을 牽制하고잇스므로 正確한 日本의 眞意傳達과 錯誤업는 列國의 輿論喚起의 必要는 지금보다 더 切迫한때는 업다 맛당히 各位도 右通信의 常道化를 爲하야 應分의 協力을 해주기바란다

一、日本文化의 海外紹介、觀光訪日客의 斡旋努力은 日本과 世界各國의 心과 心을 端的으로 連絡緊密化하는 最善策이오 外交를 外交官만에 委託하는 儀式外交로부터 飛躍하야 國民外交에의 一助로 各位의 善處를 期待하는바이다라는 旨를 强調하기로되엇다

中國市場에 日貨流入增加

【上海一日發聯合】日中關係의 好轉과 景氣의 反映되어 今年二月以來 日貨의 當地流入은 漸次增加의 一途를 迹하야 日本郵船取扱의 四月中의 日本內地積出當地流入高는 四萬五千五百噸으로 三月中의 三萬一千噸에 比하야 約一萬噸이 增加되엿다 그리고 二月中의 二萬一千噸에 對하야 거의 倍額의 活況을 呈하야 滿洲事變以來의 記錄을 突破하엿는데 이 飛躍的 增加의 主要原因은 [illegible]의 [illegible]的[illegible]이 一時的이나마 不可能하게된 結果 商人等이 日本商品取扱契約을 [illegible]수잇게되엿것과

一、最近 日本工業의 長足的發展에 伴하야 製品의 品質向上 價格低廉이 歐米品以上이라는것이 널니 認識된것 等이다 그리고 四月中의 主要한 貨物은 棉花、砂糖、工業藥品、鐵製品、雜貨等인데 今後에는 好條件下에 세멘트其他 建築材料 麥酒、사이다及其他 必需品方面의 貨物이 飛躍的으로 增加하게될것이다

本社産業視察團消息

第三信 二十七日、下關에 上陸한것이 午後七時半 여기서 東京行을 탈時間은 午後十一時、中間에 세時間半을 下關서 기다릴수밧게 업시되엿습니다。一行은 여기서 저녁을 먹기로햇습니다。一行中의 方在胤氏의 周旋으로 下關驛前에잇는 長陽館이라는 旅館二層에 懇親的晩餐會를 열엇습니다。一行을 個人對個人으로보면 서로 生面이나 맛난지 이틀이 채못되여 熟親한 親舊처럼 되여가지고 저녁을 난흔것은 무엇보다 기뿐일이엇습니다。晩餐을 맛치고 담배를 한대 뀌는동안에 車時間이되여 一行은 京都로 向하고저 東京行急行을 탓습니다。

第四信 二十八日、아츰아홉시二十五分、車가 大阪驛에 到着하니 本社大阪支局長金光洙氏外四五人이 一行을 마저주엇습니다。金支局長은 一行을 案內하고저 大阪서 우리와가치탓습니다。午前十時十四分에 一行은 京都서 나렷습니다。京都市五條大橋西畔 辨慶橋라는 旅舘에 들엇습니다。여기서 點心을먹고 貸切自働車에 分乘하야 東本願寺、三十三間堂、淸水寺、圓山公園이플라인、岡崎公園、銀閣寺等 諸名所를 회도라서 京都市로부터 西南約三十里許에잇는 아라시야마(嵐山)에가서 遊覽船을 어더타고 蒼蒼한 樹木으로덥흔 두山사이로 흐르는河流를 逆上하면서 約두어時間을 놀다가 旅舘으로도라오니 때는 午後七時頃이엇습니다 一行은 今夜여기서 잡니다。(特派員徐椿、文錫俊發)

外交刷新期하야 外交官大異動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은 外交刷新의 見地에서 人事의 異動을 考慮中이든바 一日 如左히 總領事、領事、書記官의 大異動을 斷行하엿다

總領事(마닐라) 木村淳
任公使館一等書記官(三等)
命波蘭國在勤
總領事(新京) 川村博
任大使館一等書記官(三等)
命滿洲國在勤
大使館一等書記官(新京) 佐藤庄四郞
任總領事(三等)
命哈爾濱在勤
領事(씨야톨) 內山淸
任總領事(四等)
命마닐라在勤
領事(天津) 田中莊太郞
命九江在勤
領事(上海) 川西豊藏
命蘇州在勤
領事(長沙) 糟谷廉二
命重慶在勤
領事(營口) 太田知庸
命케이프타운在勤
外務事務官 龜山一二
任大使館二等書記官
命蘇聯國在勤

夕刊後市況 一日

◆大阪短期氣配◆

大新	九六八〇	(不變)
鐘新	一二四五〇	(一〇低)
日産	九八九〇	(三〇高)
東新	一五二二〇	(不變)

◆橫濱生系後引◆
當限 六一二〇〇 先限 六〇八〇〇

滿洲國石油專賣問題
日本에最後的抗議
條約抵觸者로認定함가는用語包含
米國務省代辯者發表

【電通華盛頓三十日發】米國國務省代辯者는 滿洲國의石油專賣에 關하야 國務省은 日本政府에 最後的抗議를 發하엿다는 旨를 三十日發表하엿다 其正文은 發表치안코나 大體 英國의 抗議와 同樣으로 石油專賣의 責任은 此를 行케한 國家가 負할것이라하야 右專賣로因하야 이러나는 損害에 對하야 賠償要求를 保留하려하는同時에 日本을 마치 條約抵觸者로 認定하는 語를 包含하야 前回의 通牒에 比하야 一層强硬한것이라한다

佛國과米航空會社 航空路開拓案成立

【巴里三十日發聯合】佛國政府는 아조레스群島를 經由하는 南大西洋空路를 開拓하기로되여 米國航空會社와의사이에 商議를 進行하고잇섯든바 今回드듸어 議案이 成立되어 三、四日以內에 新航空路의 開拓을 부게되엿다

人事・集會

◆梁湘權氏(辯護士)京城府會議員 立候補人事次來社
◆洪鍾權氏(和信新山發電所長) 新任人事次來社

自六月十六日至廿二日 ☆
朝鮮初有의新聞展覽會

世界萬邦의 政治經濟社會文化諸相을 가장 尖端的으로 包括的으로 表現하는것이 現代쩌날리즘이다。本社는 六月十六日 新築落成式과 創刊十五週年 및五千號의 三大慶事를 마지하야 記念十五大事業의 하나로 現代新聞의 歷史的科學的性質을 世界的規模에서 吟味하는 機會를 滿天下讀者에게 提供키爲하야 新聞展覽會開催를 準備中이든바、이미 그 計畫이 着着進行中에잇슴으로、이에 六月十六日本社新社屋落成式日을 期하야 朝鮮이 歷史的으로 처음가지는 新聞展覽會를 左記와 如히 開催케되엿다

展覽會의內容 一、本社館 二、科學館 三、世界館

❶ 本社館은 本社의 歷史的發展과 및 現實相을 實物、數字其他模型으로써 一目瞭然하게 展示하야 朝鮮新聞의 今日이 잇슴을 徹底히 理解케하는것이며 ❷ 科學館은 新聞製作에 關聯한 科學的施設및新聞經營의 實際相을 具體的形象으로서 表示하기를 主로한것이니、이로써 現代에 가장 進步된 文化企業인 新聞의 科學的方面을 理解케될것이다。❸ 世界館은 全世界主要各國英米佛獨伊蘇中諸國은 勿論、南米諸小國歐洲諸邦 어데할것업시、天下萬邦의 新聞및 이에 關聯한 資料를 蒐集陳列하는 同時에、各國新聞의 發展傾向을 科學的으로 表示한것이다 또한 全世界의 神經系統이라고할 通信網의 分布等 모든 點에서 新聞의 世界的性質을 一目瞭然하게 展示한것이다

出品歡迎
新聞展覽會는 朝鮮初有의일인만큼 讀者로서도 此를 도으시는 맘으로 貴重한 材料가잇스면、出品하시기를 歡迎합니다

主催 朝鮮日報社

世界的發明ホリック
弱小生殖器
健全發育의好評
海外까지도

日獨佛專賣特許
ホリック眞空水治器는 世界的發明品으로서 理學的構造精巧를다하야 形小하나 効力은 甚히만타。自己가 簡單、秘密히 使用하야서 生殖器에 直接으로 物理療法을 行한즉 眞空吸引力을 일으키며 陰莖海綿部도 滿潮的으로 新鮮한血液이 流集되야서 組織을 擴張식히고 發育力을 促進하며 그 結果가 本器메-돌에 數字的으로 나타나는 同時에 理學的으로 發現되는『에쓰펀』作用을 發生식혀서、生殖器神經衰弱을 復活식히는 同時 手淫、過淫의 害、遺精、夢精、早漏 機能障害、陰萎 等을 回復식히고 生殖器發育不良、弱小를 健全妙育식히는 効果가 잇다、男子의 資格이 完成됨과 同時에 生殖腺호르몬의 內分泌도 만하저서 腦力記憶力을 增進식히고 日常生活氣分을 快活히하여 事業에 成功幸福의 運命을 開拓하는 ... 有名한 醫學博士 五十餘氏의 實驗證明推奬과 好評이 每日增加됨니다。이 絶好의 時機에 僅少한 費用으로 一生의 記憶이 될것이다。

專賣特許ホリック眞空水治器金五圓 (送料二十五錢、植民地五十五錢、代金引替十五錢增)이다
包莖도안째고自己가安全하게안압푸게成形함
特許ホリック包莖安全器는 金四圓 (送料十五錢 植民地四十二錢、代引十五錢增)이다 匿名으로 秘密히 說明書付로 送品함、安心하고 注文하시라。(但가짜잇스니 ホリック의名稱에注意할것)
無料進呈 非賣品圖入說明書는全部無料로送함으로葉書로 申込하시라。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東京 新療法研究所
電話芝三三三、三三三番 振替東京七七三九番

오-케-레코-드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恩給
立替救濟의最有利한金融方法
京城授恩洞一二〇 鄭商會

月運
月刊雜誌 小說書籍
目錄送呈 新聞名記入御申込あれ
東京市神田區錦町一丁目五 金奉書店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本校眼科教授 本院眼科長 擔任 檢眼
京城驛前 電本四七四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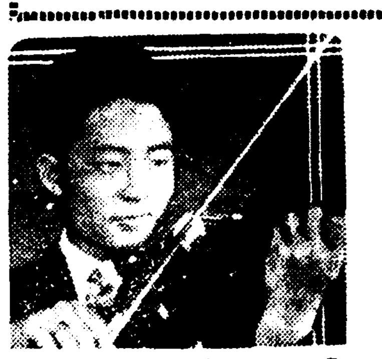
壹日特別大公開
風靡る六月映畫界シーズンに放つ
久方振りに阪妻プロ第一回オール・サウンド版
新興本年度新春超特別提供
名篇『亂麻の巷』ヨリ
脚色 鈴木史郞 監督 長尾史錄 錄音 東洋發聲システム
阪東妻三郞 一人二役主演
岡田富久也、堀川浪之助、櫻木梅子、助演
勤王黨
新興キネマ現代劇部超特級作
原作 佐藤紅綠 脚色 入江一江 監督 上砂泰藏
あゝ玉杯に花うけて
由利健次、河川なほみ主演 主題歌テイチク・レコード吹込
木村國子、松屋文人、大井正夫助演
アメリカン・ピクチュア特作
原作メーリー・プロスエル讀
覆面の怪人
ロドルフ・ウァレンチノ アール・ウオリアム 主演
永樂町 電本三〇五
中央舘

樂壇最大의 收穫이 될 劃時的提琴獨奏

平壤은 十七日, 大邱는 二十四日에

京城은 十四日公會堂에서

待望의 桂博士



일반음악팬들은 전사회적대망의 표적이되여잇는 계정식박사(桂貞植博士)의 제금독주회는 이윽고오는오월십사일밤 시내장곡천정 공회당에서 귀국후처공연을하고 이어서 평양(平壤)에서는 십칠일밤 대구(大邱)에서는이십사일에 각히 연주회를개최키로되엿다 씨의 독주회야말로 우리땅에서양음악이수입된 이래 우리사람의 손으로열릴 최고의호화로운연주회가 될것이니 씨의천재적 심금(心琴)에서 울어나온음악예술의 꽃은 통웅이 지려가는반도강산에 그윽한향기를 널리떨치어 마지안을것이다

……◇……

바요린니스트 계정식박사라면 이미 우리사회의 상식화한만치 그명성은 높흔터이라 다시금소개할여지도 업는바이나 생각컨대 씨의오늘의성공은 우리음악계의 향상과조선인의 대외적활약을 위하야 더욱고마운 존재라할것이다 씨의음악가적소재는 그가구라파로류학을 떠날때의 연주회으로도 이미총중한전공을 알수잇섯거니와 그동안십이년간독일과서서에서 가장정통적으로 구라파의음악을연구하야저명의음악가들중에서도 뛰여난 성적으로서 당당히 연주가의광회잇는활동을 하엿고 도학리적으로 연구를 하야 박사의칭호까지받든것은 씨개인의노력이나 천품의발휘로만볼것이 안이라 어땅외배성이가진본래의 천품과 긔개를 나타내인것으로 볼만한것이일이라 할것이다

……◇……

이에 영예로운 씨의귀국을 마지하야 본사에서는 만천하인사의그대에 어그러짐이 업시 씨의예술을소개하야 우리음악문화의 새로운전보의 큰수확을 엇고저 어번씨의 독주회를 개최하게 되엿거니와 씨의 비범한연주회과 혜서에 의하야 소개될음악은 전조선의 음악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줄것으로밋는다 그리하야서양음악의 고아하고 심각한내용을가진 명곡대곡을가장 경쾌하게 울미할수잇서 우리음악계에새시기를짓게될것으로 만하의인기는씨의독주회로총집중될것으로미리미리 부터각방면의 긔대는 대단한것이다 그래고반주에는 피아노 음악에 조예가깁흔평양숭실전문학교(崇專)교수말즈 빼리」씨가 당당하게 되엿다

……◇……

그리데 될수만잇스면 씨의예술을 좀더널리 소개하고십흔 계획도잇스나여러가지 사정이 허치안허이번공연은 우선경성 평양대구의 세곳에서 만하게되엿는데특히입장료는 각지방이 모다 일원균일으로 되엿다

(사진은 계박사)

會寧地方大降雪로 山間農作全滅狀態

大小麥을爲始해 全部凍死

山間農民生途漠然

【會寧】수개월간 계속하는 한발(旱魃)로인하야 대소맥(大小麥)은물론 밧갈든농작물도 흉작이될리라고 념려되든중 지난이십팔일오후부터 기온(氣溫)이돌변하며 이십구일 회녕군내(會寧郡內)회녕읍(會寧邑)과 벽성면(碧城面)을제외한 팔을면, 화풍면(八乙面, 花豐面)벽지와 룡흥면 세곡동(龍興面細谷洞)지대와 봉이면오지(鳳儀面奧地)이상 지대에는 대강설(大降雪)로 농작물은 태반얼어죽을지경이어서 전회령군내 면적의 칠할이상이오 기타벽지는 군내전인구의 팔할을점령한 산간지대의 농민은 춘궁기를당하야 그생도가 더욱암담한상태에빠젓다

厚昌에도飛雪

【新義州】 느진봄도다지나가처녀름이닥처오려는 지난사월삼십일 평북후창(厚昌)지방일대에는첫새벽부터 함박가튼눈이나려 오후두시경까지에도 긋치지안엇다 이로인하야국경일대에는온도가급격히 나려가 겨울날과흡사한 광경을일우엇스며신의주지방에도대단치워젓다

◇鋪道우의明朗한거름발…태평동에서—

富豪家靑年의 妓生과飮毒

【新義州】 안동현의 송경진강산꼿노리도 한창고조에달하야천지는 모다화락계잡긴 지난이십구일 오후여덟시경 안동현사번통(四番通)평화려관(平和旅館)에는청춘남녀의정사소동이이러낫다 남자는 평북룡천군 내중면정동동(龍川郡內中面停東洞)에원적을 둔리병조 (李炳朝)(二二) 이오녀자는본적평양유정 (平壤柳町)에 두고 현재룡천군남시역(南市驛)전에 거주하는 기생 김봉선(金鳳善)(二一)인데 리병조는 재산가의아들로 방탕한생활을 하든끄테 부친의 신용을일허 돈도주지안흠으로 무리하게꾸어썻든 남의돈을 갑흘길이업고 또전과 김봉선과는 정이들어 떠러질수업게된 형편임으로 지난이십팔일회깽에 봉선을 다리고 안동현으로가던와 꼿구경을하고 차리리둘이서는 죽어저승에서나 자미잇는생활을 하여보자하고 정사를결의한후 아편을구하여가지고 려관으로도라가 자살을 하려한것이엇다 려관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들을병원으로 다리고갓스나 녀자는분량이만헛든지 삼십일 오전열시반에 드듸어사망하고 남자는 아직만주의원(滿洲醫院)에서 고민중인데 생명은무사하리라고한다

春窮에울고잇는 細窮民이萬五千

雪上加霜으로 穀價까지暴騰

乞食者만이四百餘名

【淸道】 일년중에도가장견듸기어려운춘궁기를 당한농촌세궁민의 궁핍상태는 례년보다 금년이더욱 심각한모양으로 그들주요식량품은 대부분대맥이나 꼭가는 날보등위하야 최근시장에 나타난 대맥가격이 일원에십사전오리까지올라가 빈민생활은 가일층곤난한중군내 일만일천여인을 산하는 청도세궁민들중에는나물(菜)을캐여연명하여가는자가무려수천에달하다하며걸식가만하여도조사수자에나타난것만이 사백여인의 다수에이르럿다한다 이제실황을보건재도청도세궁민의수효를들면아래와갓다

細民	二、七四八戶	一一、〇九七人
窮民	一、〇四四戶	四、〇三四人
計	三、九七二戶	一五、一三一人
乞食者		四〇五人

宛然初冬가튼 昨今의寒氣

오늘부터는점차로회복

京城測候所員談

수일래로 기온이내리면서 함경도와 평안북도지방에는 눈까지내리며 날이대단히치워젓다 서울서도 삼십일새벽은 최저 섭씨오도까지 갓터니 일일새벽에서 다시 사도일(四度一)에까지 내리고 일일밤은 바람도불며 소속히 추워 아주 처저울날세가갓다 경성측후소의말을듯건대

이번의추이는 실로례외의일입니다 그원인은 이십칠일경 중국동해안에상기잇든 조그마한 저긔압이 점점 동북으로 태평양안을거슬려 올라가면서 세력이 점차 확대하야 일일아츰에는 북해도 방면에잇서 그세력은칠백이십밀미리로되엿다 이가티 큰저긔압이 발생한반동으로 몽고(蒙古)와북만주에는 고긔압이발달하며 북방으로찬바람이 불어와 그가티 치워진것이다 그러나저긔압도 이제는갈대로 갓슴으로 어일부터는 점차로 날세가따뜻해질것갓다

兩醫院無料診察

【康津】 전남강진읍내에잇는 창제의원(昌濟醫院)과 강진의원(康津醫院)에서는어린이날을 긔념하기위하야오월일일부터일주일간을어린이들에게한하야무료진찰을하리라고한다

六萬六千名中에 無籍者二萬六千

遼陽外二十八民會의調査結果

滿洲國側對策考究中

【奉天一日發聯合】 최근만주국에 이주된조선사람의국적문제가상당히물의되어잇는데 봉천 부근만하여도조선이주민의 사십 퍼―센트가무적자로되어잇다주요양(遼陽) 등이십구개의 민회(民會)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호수가일만사천오백오십육호에인구가륙만륙천팔백이십오인인데 그중 유적자가사만 륙천 오백륙십팔인이요 무적자가 이만륙천오백 륙십팔명이다 그리하야 만주국에서는 재만조선인의 그처대책상치문제를 고려중이다

料亭東明館 二層이墜落

일일오전 아홉시반경 시내서린동(瑞麟洞)에잇는 조선료리점 동명관(東明館)이 사무실편 이층으로부터갑작히 큰소리를 내이며문허지고그곳에서 일을보고잇든 동관의사무원 최모는급히 몸을피하려다가유리창에 얼굴을 부드치중상을하엿다 그런데마침 때가아침이므로료리집인 관계상 손님들이업서서인명의 상해는업섯스나 그와가티 이창이 문허진것은 시공상(施工上) 결함이 잇섯든것이라 하야 소관종로서에서는 즉시청동 건물을 청부해든 건축업자와 동관외주인인 김칠성녀(金七星女)를소환하야 엄중한주의를주엇다

全朝鮮各地에 天然痘依然猖獗

一月以來發生患者近七百名

腦脊髓膜炎도大流行

전조선적으로 창궐하고잇는 천연두는 의연맹위를 떨치며 종식되지안코 지난사월 일주간 동안의 발생 환자수는 한남의 이십칠명을필두로 오십일명이 나되며 일월이래의 루게는 발생환자수백팔십이명으로 그중사망자가 백륙십오명이고 현재도 신음하는 환자가 백삼십일명이다 그리고 류행성뇌척수막염도 현위적수자를 나타내어 사월이십일일부터 이십칠일까지에 일주간의 발생환자수는 경긔(京畿) 전남(全南)의 여섯명을필두로 실구명이나되야 일월이래의 루게는 이백이십칠명이다 그중사망한이가 팔십팔명이며 아직도 알는환자가 칠십일명이다

兒童愛護週間

제구회 전국아동애호주간(兒童愛護週間)은 이일부터팔일까지일주일동안 사회사업협회 주최총독부후원으로조선각도의사회사업단체를총동원식혀아동의인격존중과 학대방지에관하야 세인의관심을 깨우기로되엿다 그리고 아동애호에관한 류별푸로그람을 편성하야 전람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는 동시에 창경원(昌慶苑)과 덕수궁(德壽宮)을 공개하야 아동동반자는 한사람에한하야 무료입장시키기로되엿다 한다

漁船顚覆 一名死亡

一名行方不明

【三千浦支局特電】 일일오후일곱시삼천포근해에서목선한척이 전복되어 선부두명이 조난하엿는데 그중한명은무사히 구조되엿스나 한명은 행방불명이되어 방금 삼천포서서원이 출동하야수색중이다

朴龍辰君의 歡迎拳鬪

오는四日에

朝鮮拳鬪俱樂部에서는 最者에比島에遠征하야 堂堂히强敵을물리치고全東洋페더級選手權을 獲得하야 拳鬪朝鮮의威勢를如實히發揮한朴龍辰君의 歡迎試合을開催키로되야 오는四日(土)午後二時(雨天順延)부터 慶雲洞天道敎堂南隣東一銀行庭球場內 特設링에서歡迎拳鬪大試合을 擧行하리라는데入場料는 場內整理費로二十錢만밧는다고한다

主人업는틈에 營業道具窃取

【仁川】 주인이 쯧노리간 사이에 영업도구를 전부절취도주한 점원=시내금곡리(金谷里)幾번지조향긔(曹香箕)리발관의 점원 주정룡(朱丁龍)(二〇)은 지난 이십칠일주인이 업는사이를리용하야 점과리발관의리발도구를전부절취한후자전거에실고경성방면으로도주하다가 경인일등도로에서 소관서원에게체포되엿다는데 절취품은 체경세개와가죵리발기구등 합하야 시가일백사오십원가량이라는데 그외에도평소의 여죄가 잇는듯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牙山梁昌馥氏 燃燒器를發明

최근에발명조선(發明朝鮮)의약진하는바는 참으로 감탄할바이다 이제 도특허국(特許局)으로부터 발명협회(發明協會)로 송달한 공고결정본(公告決定本)에의하면 우리조선부억아궁이에 불합연분말연료(粉末燃料)를사용하는 연소기(燃燒器)가새로발명되엿스니 그발명자는 충청남도 아산군온양면온천리(忠南牙山郡溫陽面溫泉里)사십오번지의삼에 원적을두고 방금온양온천에서 우리사진관(溫泉寫眞館)을경영하고잇는 양창복(梁昌馥)씨인데 그가발명한연소기는가루석탄이나 가루숫이나 등겨나 톱밥이나 그밧게 탈수잇는 분상물(粉狀物)은 무엇이나 모다잘 연소할수잇슬뿐아니라 이기계를사용하면 가장경제적으로 숫및숯 또건게하야 연료(燃料)를완효하게 쓸수가잇스며 화재의념려가 업도록고안된것이라 한다

永登浦東紡의 人夫一名即死

【永登浦支局電話】 일일오전다섯시반경 동양방직(東洋紡織)회사 부정주군 옥천면문(玉川面文)이백십어번지 황귀영(黃貴永)(二〇)이가 흙구루마를 밀고가다가 잘못하야 압헤가든구루마와 충돌하는동시에 그사이에 끼어무참이도 직사하엿다 시체는 소관영등포서의 검시가 뭇난후 친부어자에게인도되엿는데이관계로 공사는하든동안중지하엿다한다

二日부터連三日間 어린이날祝賀會

鍾路中央基靑會館서

오월첫공일어린이날을 더욱 성대히맛기위하야그예비선전과축하로써 경성에서는 여러가지새로운모임이만흘터이라는데 그중 조선아동예술연구협회(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와 중앙긔독청년회 소년부(中央基靑少年部)의 공동 주최로 조선어린이날중앙준비회 후원으로 이일부터 사일까지 연삼일간매야여덟시부터 종로중앙긔독교 청년회관(靑年會館)에서 다음과가튼 모임을 개최하리라는데 입장은 무료이나 초대권을가지안흔분에게는 장내정리비로 십전식을 바든다한다

第一日『講演의밤』(五月二日) 一、合唱 꾀꼴이會 一、講演(家庭과兒童)廉廷權氏 一、獨唱 全明姬孃 講演未定 吳天錫氏 一、講演、兒童藝術과敎養問題 鄭演偶氏 獨唱文英姬孃

第二日『童話의밤』(五月三日) 一、合唱 꾀꼴이會 一、獨唱 金貞玉孃 一、童話「말하는 남생이」元裕珏氏 一、齊唱 金蘭會員 一、獨唱 李恩卿孃 一、童話『바보의비단장사』崔仁化 一、齊唱 曙雲律動研究所員 一、獨唱 忠信童謠研究會員 一、獨唱 金源貞孃 一、童話「귀여운마음」毛麒允氏 一、齊唱 靑鳥會員

第三日「紀念의밤」(五月四日) ▲出演團體 西洋兒童音樂團 忠信童謠研究會 孔德里幼稚園 꾀꼴이會 中國兒童音樂團 曙雲律動研究所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 「알―己퍼」하모니카밴드 京城保育學校 靑鳥會 日本兒童童謠團 旺新童謠研究會外 金生峰 李東坡其他數氏 金蘭會

車掌의號令에는 慰藉金바더야할일

정거장에내리자끌려만단닐뿐

식골觀光團尾行記 (一)

거리에 가는곳마다 널려잇는 식골관광객들! 과연그들은 얼마나 살림의여유가 잇서서 한가로운 서울구경을왓는가 구경은과연 무슨구경을하고가며 엇는것은 과연무엇인가 그러고 그네들은 어느거리로 어듸로 돌아단니는가 짤부면 하로 을 길으면삼사일, 서울장안에서회와도는그네들의발과낙을 딸어단니며살펴보기로하자

▼……이새울밀듯서울구경오는 시골손님―정거장에 나가 시간을 기다리는동안 위선안내게에 가서 통계수자를 뒤지어보앗다 십오만 팔천삼백이십삼명과십륙만구천칠백사십칠명! 이것이 지난사월십일일 창경원(昌慶苑)의 야앵이시작되든날부터 동삼십일까지 이십일동안에 경성역에서 차를탄사람과내린사람의 수효다 때가봄인테다가 널리 알려진 창경원의야앵이 시작되고 경복궁에 박람회라고하는것이 열리고한다는 바람에 밧시세니 망산시세니 하는룸 경과의 바람이 불자게다가 철도국과박람회주최와 류一 빠스등…류一로一와 여관업자들이 동심이되어 이편저편으로끌고 단니는 세바자가드리마저 구경군이만히모혀드는것도무리는아니란상 싶다 이가리하야『스리』까지등장하야 한목을잘보게쯤 서울은사람의복바닥이 이르키고잇서그덕에 전차운전수와 차장과 교통순사와 사복한형사와 백화점의 점원들은 동물원의 동물들과한가지로 신경쇠약이걸엿다

▼……남쪽에서오는 텅시 렬차가경성역제이홈에들―에도착되면서와―몰려나오는손님들―전에는서울서드물게보든모습과재림을한시골사람들에 석거한무리이 단체객들도나온다 선동장인듯 심히 귀빠른논다랏케 울려비는 사람이 인솔자요그기에는 ××라고 썻다 단원의옷깃에는 분홍헌겁이 한조각씨 일행은 삼십명쯤되는데 녀자가절반은되고 남자중에 다섯은양복신사이시다 보따리를 들은이도 만히잇섯고 일죽이보지못한경이(驚異)의세상으로 드려서는판문인 경성역이 위선그들로 하여꿈 어리둥하니팡이버리지게한다 그리고 빽빽히입장에그려선 택씨―아우성을 치는 전차 자기네끼리부르고 웨치는소리, 한울을찌를듯(?)한 고층건물들 그리고자기네이외에도 수래만흔사람들……이것이 위선극히 한적하게 시골서지내든 신경을일격하에 마비식혀바린다 그리하야 그들은 공연히뛰여가고허둥대고 허허웃게만된다.

◇

▼……여엄에 맛침 등대한듯십흔박람회장 가는전차에 그들××단체와 한가지로 전차를탓다전차를 태워노흐니 자리에안젓든것을 후회하고 제각금 이러서밧갓을 내어다보기에 여렴이업다 허나그들은 인솔자에게 전부를맛겻스니 그러치아니하지만 개인구경객들은박람회가어데냐고 뭇는다고 경성역정류장을 떠나면서부터 차장과운전수를 성화를맥인다 전차가 남대문정류장을 떠나느라고 땡땡종이우니까 갑작히 노인한분이

『여보! 왜 남내릴라는데작구만 종을치우?』하고 꾸중을 한다 하더니 전차가룡시정거를 하기가 무섭게 영감님은 마나님의손을잡고응유히 내려선다전차는 다시 떠낫다 그러자그영감님은 그러케 소중이 손을잡엇든 마나님의 손도 노아버리고 빠르지도못하는 다름질로 전차를따르면서 전차를 머무르라고 호령이다

『전차 게잇서―게잇서―여기가 대한문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나 전차는 그대로 달리고맙고 노인은 뒤에떠러저서 발을동동구르기만한다

◇

▼……전차가 총독부압 정류장을거진왓슬때 차장이 어느양복신사압헤와서 차표를찍어 주는데차장이회환표를찍다가 잘못되엇든지 바―찌즈니까 미칠그엽헤안젓든 시골마마님하나가 집색하게들래어 차장의딸을 올켜잡으며하는 말

『여보! 앗가운걸 왜그러케 찌저버리우? 찌저버리느니 돈업는 내나 주엇스면 인섭조판이나 돗지!』

이말에 차장은 어이가업서멍하니 치어다보기만한다 어느사람은옷곡「총독부압이요」하고차장이웨치니까 지금까지 자리에안저잇든듯 웬험수룩한청년이하나가경풍한듯이벌떡이러나며

『정거장이네정거장나먼서유?』

하고뭇는다경성역으로나가려는이 전차를거구루탄모양이다이말것을 듯든차장씨성을버럭내여젊은이를 화밀치며

『정거장 가는사람이 왜이차를 타요! 왜!』

하고 그야말로 반찬먹은고양이잡두리하듯한다 이런경우에는 송재이오전을내고 전차를 타야오를지 그러치안하면 봉변한 위자금으로 송재이 도리어오전을 바다야할지 결정키곤난하다

▼……다단(?)한든이전차는그래도 큰불이업시 무사히목적지인 박람회장어구의가정류장에일행을 토해노코 시언스럽게 호자동챙으로 다려낫다 박람회입장권사는데서 단체는 단체대로개인은개인대로 드러가는데 의시시끌서오구가 개인입장객 십여명들어가니 급성(急成)단체 하나를만든다 올커니……단체 입장에는 할인을 하니까!

▼……일지이귀모의론놈이면론놈 적은놈이면 적은놈이라도 박람회라는것을 보앗서야알이지 시골서 농사나짓고하든 그들을 적우간이속에 모라너으니 그저어리벙벙해할뿐이다 상품이잇고 기게가잇고 대포도 노형잇고 무슨모형들도 만들어노코 이모든것이 그저그들의 시신경이나 자극할때름이지 그것울보아서일가」에는대부분이그들의상식이상의것들이다박람회는차물품진렬관들을 마시듯보는듯 마는듯차리리 그들에게는 관상보는데가서 십전을내고 일생의운수를 판단하는것이 도리어흥미가 잇는 모양이다 이십전내고 종을노아담배파떠러든리는대로 라면는 소위 유히장에 잔득모혀서서 이십전, 사심전, 륙십전을 랑비하고 잇다 협라고웨치며 험지아니하게 딸려는구내의 매겹이 아주세월이조타 차리리 경희루를 그들은 행 인상검거구경하고잇다 그러면서도 이곳서 세시간을보내고나오는문에서 한시람을붓잡고 무러보니

『조흔것갓흔것수만 나는무엇이 무엇인지 구경맛을 알수업수』

가 그의 대답이다 약국에 갑로로 서울구경에「통홍원은 떠나지못할것이라 단체의일행이 중심되어 바람을 창경원으로―(계속)

꽃피는 봄날은

림질의활동기

어더케하면 속히근치되는가

「열 분」 한것자랑을 새차고 가 데게 벗단옷, 발상(發散)에 지내는 봄바람이불어 올때마다 병마로 고통하시고 게신어른들은 것없는한숨을 쉬이실줄밋습니다.

봄이오면 나무와어느덧이며꼿피듯이 사람의몸에도모든병이 새삼스럽게 발병케되는것이나 그중에도 근이업는고통을주는 림질의재발에는 더욱 심한번민으로 한숨의봄을 마지하시고게실것입니다.

림질의고통은 한번앓어본사람이아니면 몰은다는말과갓치 그고통과 불쾌함은 참으로말할수업는것인데 림질의해독은자기자신의신세뿐만아니라 진안사람 더한층 나아가서는 국가의국민건강을해롭게하는것입니다.

그러나림질환자는「내대장부면 한번은 걸녀야지…」하시고 그리더소롭게 생각하지안으시나

「조」선 사람으로 태난이상 아니자기나라의 발전을 위하야 자기자신을 위하야 건강한어문이되지안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에걸니신때에는 마셩고질이되시기전에 화설상으로나 실제로나 제일조흔 치료약과 치료법으로 상당한조속히근치식히시는것이 가정의주추돌이며 나라의큰힘이되실 여러분의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남편에게림질기운이 잇스면 반듯이 부인의게전염됩니다

집안살님사리와 시부모 남편 시중에골몰하시는부인의게 더한층 병마의고통은 심하게됩니다 즉 어느결에 림균이전염되여 「부」인 병을 발명케되나니 차차 오줌이자지지고 국부가 붓고 아프며 가려울고 대하증(냉병)이 흐르게됩니다.

또한 월경이 고르지못하게되고 월경때면 몸시압케되며 늘 두통과현기증이나고 팔다리와허리 아래배가쑤시고, 땡기며 냉하고 압흐며 소화가 잘안되고 가슴아리가생기고 점이되야 신트름 흐흐구미가 떠러지며 변비증이 생기게됩니다.

더구나 부부화합에 자미를모르게되고 녀자의미려한 애교와 「화」색 을일케되며 대하중으로인하야 아해를 못배게되야 스롭과박대로 일평생을쓸쓸히 보내게됩니다. 그러므로 로―신남녀때는 물론이요 가정생활하시는분은 부부협력하시와 병원을잘살피시고 하로밧비 치료하시기바랍니다.

종래의림질치료법과 새로운 신학설

지금까지에는 보통 내복약(內服藥)으로 치료된다고 생각되여 왓으나 사실에잇서서는 임시적 안정도는 병을잡작이히는데지내지못하야 늘 재발식히거나 만성고질로만들엇다는것이 새로운 권위잇는신학설로 증명이되엿습니다.

즉 수만흔 내복약은 그품원 원장 최등영선생이 제이십여년간의 실지경험과신학설의연구로 재래의치료약의 결점과약점을 모도 보충한새로운 림질근치약을 발명하시사 의학계와전문가뿐만아니라 자택치료게에서 일대환영과 감사의칭찬으로 환영을밧게되엿습니다.

「억」설 로 욕하는가 주장하는바가아니고 약효에「그러면 어떠케하면 직에서라도 먼저근치되기를 바라는데에 지나지안슴니다.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난다

즉 직접환부에침투되여서 림균을곳속이며 약기운은 전신에 퍼지고 깁히 뿌리백힌 림균을 속속드리 뿌리째버리며 단시일에 근치가되는 주정부치료약「부라오(銀)젠고―루」를 발명하시엿습니다.

「부라오(銀)젠고―루」는 수만흔 약중 제일질곳는다고 칭찬을밧는바와가티 强力的殺菌力과消炎深透作用이 민속함으로 어떠한만성고질의림질 또는부인병이라도 조선사람의 체질에 꼭맛는만큼 전문가는물론이요 자택치료에도 아무 염려업시 사용하시와 단시일안에 근치됨으로 치료비도 퍽 경제적입니다.

림질환자에게깃뿐소식

「젠고―루」에는 약가는가트나 증세에따라 一號(급성용) 二號(만성용) 三號(부인병용)의 구별이잇스며약가는 시용약一원九十전, 十七일분—三원八十전, 五日分—七원이오며 병세를조선국문으로 자세히쓰시고 東京市芝區三田通新町 日東製藥合名會社(振替東京三一九四三)으로 朝鮮日報를보앗노라하시고 주문하시면 특히 송료를무담하야 대금인환으로 송약해드리며「실험보고서」와「설명서」를 어느분의게도거저드립니다.

巾着網使用增加로 群小鰯漁業者恐慌

從來의使用許可四十三統에다가 新規申請이四十餘件

【雄基】전조선의약어(鰯魚)어획고의 칠할을 점령하고잇는함북도내의 약어어업은 그대부분이권착망(巾着網)에의하는바 현재 허가되어 사용되는것이 조산만(造山灣)과 경성만(鏡城灣)중심으로 사십삼통에 달하는바 그허가기간이 만개년으로 박금 관계자 들은 계속허가신청을 하엿고 신규로허가신청한것이 사십삼통이나 되는바 도당국에서 여하히처리할지가 주목된다 그리고이대자금을요한 권착망은 지원군소어업자들은 도저히리용할수업고 대자본이 독점하게될으로 전도에산재한 무수의군소어업자는 생도를 빼앗기게되여 크게 공포중이라고 한다

어린이날紀念 —盛大히準備—

【光州】본사광주지국의 주최와 광주주일학교협회(光州主日學校協會)의 후원으로 오월오일 『어린이날』을긔하야당일오전십시에 당지 사립보통학교 교정에서긔념식을거행하고 식이끗난후에는 장소를 공원광장으로 옮기여 소년소녀원유회(少年少女園遊會)를개최하리라하며 그긔념행사로 당지간조동화교와 유치원의 우량아동표창식과 제이회 전매주아동무료건강심사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는 주최자로부터 각각상장과 상품을 수여하리라한다

밧三百四十坪을 簡易校에寄附 豊山金萬守氏美擧

【安東】경북안동군풍산면회곡동(豐山面檜谷洞)김만수(金萬守)씨는 금번동리에 간이학교(簡易學校)가 창설됨을긔회로밧삼백사십평을긔부하엿다는데근동리 인사는 씨의미거에 칭송이자자하다

平南旱魃依然繼續

苗板期가닥첫스나束手無策으로 農家人心이極度不安

【平壤】평남지방은 여름을 부터 한발이계속되여 농가의 우려가적지안튼바 벼못자리를요하는 묘판(苗板)씨의못자리를하고한 아안심하엿으나 그후 비가 내리지안어 고심하는동시에 농촌의 민심을안정 케하기위하야 [illegible] 道가 되게 되었다 [illegible] 국도에 당하고 잇다는데 당국에서도 며면과 지주 조파조식(早播早植)을 장려하고잇는터이라 인의적으로는 엇지할수업는일임으로 당국에서도 극히 우려중에잇다한다

이라고하야 산모가신음하고 잇는동안에 강보에다싸서 어데인지 유괴하거늘 [illegible] 이 기하하고 [illegible]

任炯宰氏美擧

【平壤】평남부내 [illegible] 任炯宰씨는 [illegible] 표창하기로 결의하엿다한다

記錄的인金密輸

不過一個月間三百二十八回에 密輸金塊額十五萬圓

【平壤】府內新陽里一七七 貨金鵬商 金元鎬(三五) 同張根命(四〇) 同新陽里二一 李喜姬(三) 同新陽里一八一 洪壽德(六二)등은 전긔김원서이가 금은상업을 긔회로 지난이월이십일부터 사월이십사일까지 불과일개월간에 첩가는 정거망을교묘히 피하면서 덕력(德力)평양지점등 긔타에서 금괴를 매입하야전긔사명이 교묘한련락을 취하면서 삼백이십팔회에가겨 십오만원을 안동방면으로 밀수출한것이 발각되여 방금평양서에전부가 피검되여 엄중한취조를받고잇다한다

어린이날準備 【自巖】

용강군류월면주달리(龍岡郡龍月面周達里)소년회에서는 창립이래압날의조선은 우리의것이라는 표어아래 조선의새싹인 어린이들의인격향상과 교양훈련에 [illegible] 힘써오든바 금년에도 명래에의하야 조선의 새명절인 오월첫공일을 어린이날로 [illegible] 이라는데 그어린이날긔념식 준비

강군남면정연리(平庚郡南面亭淵里)유지임형재(任炯宰)씨는 동리극빈자 십오호에대하야 지난이십구일 매호당소미일두식을 배급하엿다는바 일반인사들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위원은다음과가다
會長=林鋼五 會計部=趙炳欽 交涉部=趙孝植 接待部=金正呂 設計部=趙炳璞

前津漁港修築計畫

—工費三十萬圓에明年着工豫定으로— 目下補助申請을準備中

【咸興】작년부터충동부당국은부터 긔업이 졸정하야창긔강을두고십지 추량을 맛추한남전진항의 수축안은 총공비삼십만원 지원민간부담삼만원으로금명년부터 긔공할예정으로 합남도로고보조신청을 수속중이라한다

伽倻郵便所員 公金橫領코被逮

【咸安】경남함안경찰서에서는지난이십칠일밤에 돌연 관내의가야우편소(伽倻郵便所)사무원 일지(日置)라는사람을 인치하고엄중한취조를 하고잇다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그는일지라는 사람이 저금사무를취급하고 잇든것을긔회로 근일년동안을두고 저금도전여원을 교묘한방법으로 서류를의조하여 횡령한사실이 경성저금관리국 사무감사원(京城貯金管理局事務監査員)에게 발각된것이라한다

安邊郡下에大火災

細農家六棟七戶를全燒시혀 三十災民生途가憂慮

【咸興】지난이십삼일오후열한시경에 안변군서곡면정우리(安邊郡瑞谷面井隅里)안정하(安貞河)의 주가에서 발화하여 삼시간에린접하여잇든 주가륙동칠호를 전소하고 이십사일오전세시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일천이백원이라 하며 원인은 아직미상이라는바 리재민 이십팔명은 위선리근촌에 수용중인바 원래세빈한 궁민들로서 더욱 이번 재해로인하야 생도가막연하다고한다

同部內務部長에 公普設立等陳情

【安東】지난사월이십오일경상북도아부내무부장(阿部內務部長)이 래안을긔회로안동읍의원으로부터 좌긔의가티 칠대사항을진정하엿다한다

一、泉里川堤防上築工事施行件 二、[illegible] 第二公普設立件 三、安東 [illegible] 件 四、安東 [illegible] 件 五、安東 [illegible] 件 六、[illegible] 件 七、太白山森林伐木施行件 以上

經營難에빠젓든 文化學院의曙光

有志의赤誠으로

【新興】함남신흥군동상면도안역(新興郡東上面道安驛)전에잇는문화학원(文化學院)은 거금 십년전에 그곳빈농과 밋흠만 아동교육을목표로 창설된당지유일의 문맹퇴치긔관으로 해마다 다수한졸업생을 내여교육상막대한 공헌을남겨온바 그학원의 유일의후원자이든 도안구락부(道安俱樂部)의 재정곤란으로 수년이래로는 심각한경영난에빠지어 퇴락한교실을 수선할길이업고 교원들의 급료까지 지불치못하므로 당지백원조(百原組)의조장 정경일(鄭京日)씨는이것을 우려하야 매월이십원식사재를 기울리어 이래수삼개월동안간신히유지하여오든바 지난이십륙일학당내에서열고 광대리 제일구진흥회교장부(廣大里第一區振興會敎育部)의후원을엇기로 가결한후즉석에서 아래와가튼 의연금을모집한후 다음과가티 간부를선정하엿다는데 이리하야 비운에빠지엇

▲一百圓 [illegible] ▲九十圓 [illegible] ▲四十圓 [illegible] ▲三十圓 百原組 ▲十五圓式 [illegible] ▲十二圓式 車仁洙 [illegible] ▲十圓式 [illegible] ▲七圓 金龍植 ▲五圓式 [illegible] 宋鼎化 ▲三圓 宮崎第十郞 ▲二圓式 朴承弼 李龍河 金宗學 韓弘哲 李達秀 權春和 洪洛壽 金河傑 徐泰能 ▲一圓式 李弘益 朴鼎鉉 南忠極 蔡炯淵 金完基 黃珪萬 李庚龍 李成根 朴七星 金河奎 全信燮 文明寶 ▲五圓式 李燦恒 金寅植 ▲二圓 常賢訓 ▲五十錢式 金利根 金夢喆 李龍基 金孝根

◇新任幹部=敎育部長千鳳南 評議員朱熙律 李應燮 韓桂宗 外十二名 顧問鄭京豐外三名

◇寫眞……文化學院의革新紀念撮影

馬山=咸安中心인 文學青年秘社事件

取調四個月半인지난三十日에 羅英哲等五名을送局

【馬山】긔보=마산과함안(咸安)을 중심으로된 푸로문학청년의모종비밀결사사건은 이래 마산서고등계에서관계자를취조중이든바약십여일전 동사거의혐의자로 취조중이든 석방한우 취조의일단락을 보앗는지검거이래 마산개월반인 지난삼십일 관계자오명을 마산검사국으로 송국하엿다는데 송국자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馬山)羅英哲(二三) 金文洙(二五) (咸安)李元壽(二二) 黃甲秀(二六) 諸昨璨(二二)

裡里邑內에— 一日棄兒二件

【裡里】지난사월이십팔일오후일시경에 리리읍(裡里邑)마동정(馬洞町)산미려잇는 시녀제(侍女堤)라는방죽에는생후멧시간이못되는갓난애의시체가떠올라잇는것을마동정사람들이발견하고즉시소관리리경찰서에 알이게되자 동서사법주임은 공의를대동하고 현장에출장하여 각방으로조사하엿스나 범인을알길이업섯다는데동일동시경에 리리읍송만리(松萬里)길거리에도 역시생후하로바게 지나지안해보이는계집아이를 보작이에 싼채 내여바렷는것이 역시 리리경찰서원에게발견되여 쌍방의범인을 엄탐수사중이나 아직것 단서를엇지못하엿다고한다

三萬市民의期待인 雄基港擴築問題

實行委員會로부터積極運動次 三日에市民大會開催

【雄基】상업시면의긔대를가지고잇는 웅긔항확축긔성회 (擴築期成會)에서는 지난이십칠일실행위원회를 상공회(商工會)에서개최한후 교씨(趙氏)의상담을방부터 승평동(松平洞)토지매수동지어촌이전문제(漁村移轉問題)등의경과를보고한후 이때까지 정돈되엇든동운동을 금후적극적으로 전개키위하야 오는삼일오후여섯시부터 웅긔좌(雄基座)에서 시민대회(市民大會)를개최하기로 결의하엿다한다

白晝强盜出現 【順天】

지난삼십일오후두시경전남순천군쌍암면(順天郡雙岩面)선암사(仙岩寺)승려(僧侶) 백화래(白華來)(三四)가순천송광사(順天松光寺)에갓다가도라오는도중마카재(峙)를통과할지음에강도한명이나타나돈을내라고고봉으로난타하고현금십오전을뺏어도주하얏는데이급보를접한당지경찰서에서는 범인을엄사중이나아직종적을모른다한다

竊盜行脚三人組 仁川署에被逮

【仁川】경위한전거물 상인조절도단인 釜山府瀛仙町一三三七番地 金相基(二〇) 同一二五八番地 金萬寶弟 金滿蒼(二〇) 同 李永祐(一八) 전긔삼명이 공모한후 부산에서자전거를 절취한후 인천까지자전거로오면서 도로연변에서 각종물품을 절취한후 도산정(桃山町)화만지 화정숙(花正叔)방에 붙드로 서대를화당한후 전긔자전거를 통해인에게 팔라다가 소관서원에게 체포되엇다는데 범죄구여이 부산서인천까지도에 거래에달하리라하야 방금엄임으로 여죄를 조사중이라한다

晉州一新女高普 十週年紀念式

【晉州】진주읍금정(錦町)·일신녀자고등보통학교(一新女高普)는 금년에개교십주년을마지하게되여 지난이십오일오전십시부터동교대강당에서 긔념식을성대히거행하엿는데래빈석에는 멀리부산(釜山)각중등학교교장과 김천고보(金川高普)정(鄭)교장을위시하야 백여명에달하엿스며 오후네시부터는긔념유희를개최하고 다시 긔념전람회(紀念展覽會)를열게되엿는데 동전람회에는 동교생도들의손작품(手藝品)한작품과 며자교육상 만흔리익이될 자료를진렬하야호평을어덧스며 특히참고품(參考品)에는 조선, 중국, 고서화등, 진귀한것이 여전을진렬하야 일반에게무료로공개하엿다한다(사진은긔념식장과유희광경)

安城安青學院 創立紀念準備

【安城】안성읍내 안청학원(安青學院)은 현재주야학 남녀학생이 오백오십여명에 달하는 당지유일의 무산아동교육긔관으로 방금사립학교로 승격하기위하야 수속중인바 오는오월십일이 동학원창립십주년이됨으로 동학원에서는 긔념식을 성대히거행하기로 방금준비중이라는데 지난이십륙일 동학원후원회에서 총회를열고 여러가지로 협의한결과그학원을 위하야 [illegible]

一犬吠虛萬犬吠 光州의風說正體

【光州】최근 광주에는 허무맹랑한거짓말이 류포되여 지난이십칠일이래 금일까지 사오일을두고경찰서문전과 재판소문전에는 다수한부인들로 대잡당을일우고 잇슬뿐더러 본사 광주지국에 까지 동리의 진상을 탐지 하다고 부인들이 장소군각치 모여 들고 잇는데 그들에 의하면 십인 십색으로 장소와 씨명은각각 다르나여하튼 어떠한자의 첩이산파와 공모하여 가지고 그본첩의산아를 사람이안 [illegible] 명을 구조한것이 [illegible] 이목에 알리우게되여 범행자는 사직의손에 처벌을받고 잇다는데 평한후에 전파된것으로 부인들은 [illegible] 진부를 알려고잇는것이나 동간이 자라기는 이거지말은 전서의 피재로되여무 지한 부인들의호긔심을 자극하고 잇는것이나 어떠한 풍설의출처는 [illegible] 논산노리(論山)가튼여자한자라구 에이 며자한사람의 거짓말이일견폐허(一犬吠虛)에 만견폐 (萬犬吠實)격으로 그와가치 [illegible] 된것이라한다

新築落成된麗津唯一醫院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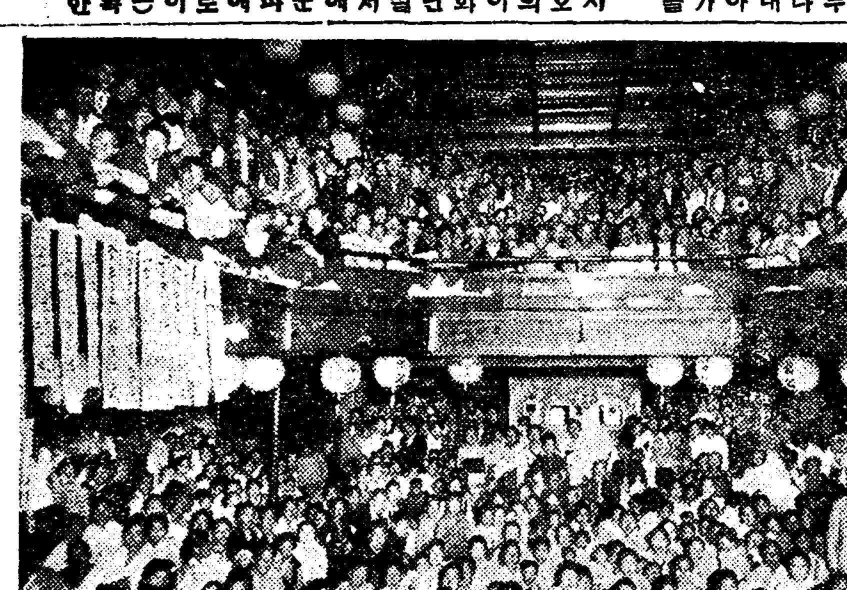
青帝의大誤算! 三月에六花紛紛

【郡仙】작년겨울이래로 한번도비가 오시안어서 입종한곡식이말으고 음료수가말으는등 가뭄의소동이 척지안허 비가오기만고대하고 잇든함남원지방에는 지난이십칠일부터 문자그대로 일쳐청음의단비가 나리기시작 하야초조하든 일반의가슴은 다소완화되엿스나 이상구일부터는 긔온이별안간 나리면서 백화가만산머리에는때아닌륙화(六花)가분분하야 두치나되게적설하는괴현상을니루어온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말엇다 이것은 근래에업는 괴괴화로서무슨동화적세계(童話的世界)에서나 차자볼 괴이한일이라하며 산지대의농작물에 피해도 적지안흘뿐아니라 무슨불상한조집이나 아닌가하야일반은 공포한예감(豫感)을 품고잇다고한다

【平康】곡우(穀雨)를지내지 십여일이요 닙하(立夏)가 불과오륙일을 격한요사이에 백화쟁연의 시절도 다지내고마야호로 신록이 무르녹은 강원도철원서일대인 금화평강(金化、平康)지방에는 지난삼십일 아침부터 느진봄비가부실 부실나리터니 오정때에 이르러서는일기가 갑작이치워지면서 비에석긴눈이나리터니저녁때에는김화군근북면에잇는 오송산(五松山)과 동군 근남면과 회진구상서면계에잇는 대성산(大成山)등을필두로 각군교산지대에는 때아닌 백설이여러치식와여 봄두는 백옥(白玉)을 무거세운듯하고 봉해는일혹의석이 일목가경을 이루엇다한다

경남령산읍 동리남영회(南詠會)씨는 재산의여유가 풍족치도못한데 금번령산공립보교에 이백수십원을 드려운동장 배수도 급운동장에서교실에 옴나가는 계단을두개나시설하엿다는데 학교당국은 물론학부형일반은 칭송을마지 안는다고한다

南旨廉氏特志 【靈山】



本報神戸支局後援(在留同胞慰安素人劇大會)

地方人事

▲濟川浩二氏(鶴橋公普校長)新任人事次本社鶴橋分局來訪
▲白南衡氏(會寧稅務署間稅課長)端川稅務署轉勤人事次本報會寧支局來訪
▲徐化龍氏(咸南地方森林主事補)文川就任人事次本報文川支局來訪
▲羅相球氏(瑞山農業實修學校敎諭)赴任人事次 本社瑞山支局來訪

社告

朱安支局 位置 京仁線朱安驛前 支局長 朴七福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並川分局 位置 天安郡並川面 分局長 洪完基
淸風分局 位置 堤川郡淸風面 分局長 柳觀鎬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謹告

通川支局 右解任 駐在記者 李石山
外金剛分局 右新任 記者 鄭[illegible]
吉州支局 右新任 記者 朴唐松 同 朴錫榮
會寧支局 右依願解任 總務兼記者 徐俊甲 記者 鄭義根 寫眞班記者 黃泰完 右新任 寫眞班記者 金雲龍
奉天支局 右解任 總務兼記者 金鶴水 右新任 總務兼記者 吳文[illegible]
滿浦支局 右新任 記者 李永守 右解任 記者 金[illegible]
泰川支局 右新任 記者 白[illegible]
江界支局 右新任 七師分局長 康[illegible] 同總務兼記者 洪寅浩 南新在駐記者 許[illegible]
渭原支局 右新任 顧問 朴[illegible]
洪城支局 右新任 記者兼廣川分局長 金東哲
谷山支局 右新任 總務兼記者 李[illegible] 右解任 總務兼記者 金泳俊
榮州支局 右新任 記者 朴榮洙
淸道支局 右解任 記者 鄭[illegible]

濟州 洋裁縫講習會
▲會期 自五月九日至五月十三日五日間 ▲會場 濟州中央幼稚園
◇主催 濟州中央幼稚園慈母會、朝鮮、朝鮮中央兩濟州支局、싱가-미싱會社濟州支局

靈光 市民大運動會
▲時日 五月五日 ▲場所 靈光公立普通學校
◇主催 靈光體育團 ◇後援 朝鮮日報靈光支局

西井里 金剛山探勝團募集
▲時日 五月二十日午前九時發 ▲會費 十六圓也
◇主催 朝鮮日報西井里支局 ◇後援 東亞日報西井里分局 西井里[illegible]

奉天 全奉天少年少女雄辯會
▲時日 五月四日午後七時 ▲場所 奉天西塔敎會堂
◇主催 奉天基督青年勉勵會 ◇後援 朝鮮日報社奉天支局 奉天巡讀會

平壤 全朝鮮自轉車競技
▲日時 五月四、五兩日午前九時 ▲場所 箕林里公設運動場
◇主催 平壤輪業組合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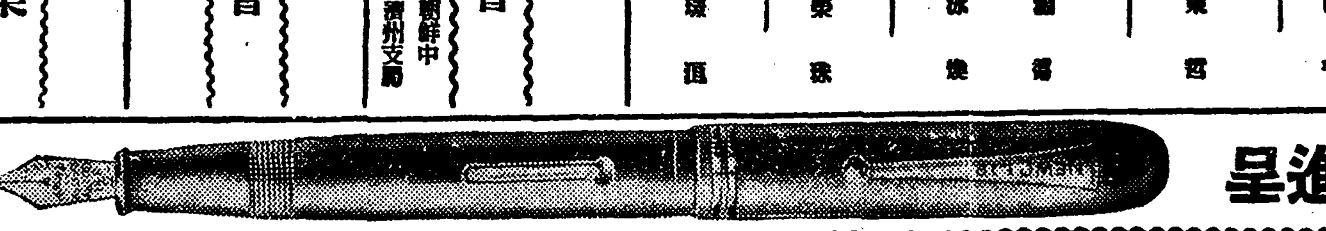
光州 南朝鮮蹴球大會
▲時日 五月廿五、六、七三日間 ▲場所 光州高普球場
◇部門 青年、中學、少年 ◇主催 朝鮮日報社光州支局

絶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産=大販=市價의半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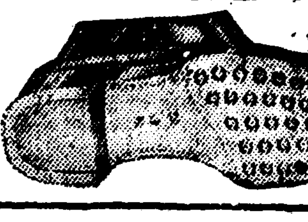
定價一圓의萬年筆五萬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革靴大爆發的大景品付

靴一足에定價一圓의萬年筆一本式進呈(最新インキ吸入式、一年以上使用할수잇는萬年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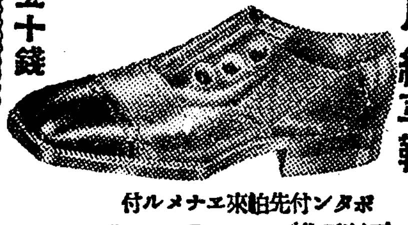
靑年訓練總革靴 一圓五十錢 上等圓皮底

鬼三枚底=總革學生靴 三圓五十錢 耐久二個年以上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 總革フレンチ型

フレンチ型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深型靴 五圓五十錢 短型靴 四圓五十錢

中學生專用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用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一足 金二圓

晴雨經濟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停留前)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電話東五二二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產系

昨年中水產製品 二百十五萬餘圓
鰮토마토를筆頭로三十餘種
水產朝鮮의發展相

朝鮮水產業界의 發展은 驚異의 躍進을거듭하고잇는바 그것은漁撈에잇서서만이아니고 製造方面에잇서도 大發展을示하고잇다 이제昭和九年度水產製造狀況을보면 許可工場數가百六個所、操業工場數七十四에對하야 製造數量二十三萬三千五百五十八箱、價額二百十五萬五千二百圓으로 前年數量十七萬六千十八箱、百四十七萬二千八百七圓에 比하면 五萬七千五百四十箱、六十四萬二千三百九十三圓의 激增을 示하엿다 그外道別生產額은 咸南道八十萬圓을首位로 江原道가四十四萬圓、咸北이二十九萬圓 其他全南、慶北、慶南、全北의順序로되어잇스며、種類別을보면 鰮토마토八十四萬圓을 筆頭로 毛蟹水煮四十一萬圓 其他鯖魚水煮 鯨水煮等三十餘種의 水產罐詰가生產되고잇다

馬養島附近의 漁獲最近大豐
去二十八、二十九兩日間에 鱈魚四駄鰮魚二百樽

【新浦】咸南新浦馬養島附近에서 지난二十八、九兩日에 多量의숭어와 정어리가잡히엇다는데當地漁業組合에는 入札者가치미러一時는混亂狀態에이르럿다한다、二日間漁獲高는 숭어四駄 정어리二百樽이라한다

對加奈陀 貿易調整
對策을講究中

【東京電話聯合】外務省에서는지난二十五日의 通商審議會에서 日本商品을確保키爲하야 日本商品에對하야 極端의防過政策을取하는諸國에 通商擁護法을 發動하야 防過策에 對抗키로決定하엿는데、目下 加奈陀貿易의調整을期케되야 今週中에 對加奈陀貿易關係緊調特別委員會를 열고 通商擁護法發動의 諸準備를完了키로되엇다 廣田外相으로서는通商擁護法을 發動케하기以前에한번 加奈陀政府에 最後的折衝을하야 不合理의 덤핑其他防過稅의撤回를 要求할 方針으로 新任加奈陀公使加藤外松氏가 五月中旬에 赴任할것을 기달려서廣田外相이 訓令을 發하고 同國과의折衝으로 懸案의 加奈陀貿易의調整이 보게될는지 重視된다

商工部會開催
航路擴張을研究
◇仁川商工會議所에서

【仁川】九百八十餘萬圓의 工費로 現在의七倍나되는大築港도不日起工의 曙光을보게된仁川에서는 江原、黃海、京畿、忠淸南北五道에亘한 商圈擴張等各方으로猛活動中이든바 또다시仁川商工會議所에서는 來五月二日午後三時부터 商工部會를開催하고 仁川近海의 航路擴張과研究 또는將來改善方策等을 討議하리라는데 今後로每月一回의例會를開催하야 專門的으로 徹底研究하리라한다

金川各種會授賞式

【金川】黃海道金川郡農會에서는 지난二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 郡農會議室에서 各種堆肥增產競進會、秋耕競進會、栗多收穫競作會、棉作品評會、桑田品評會、蠶業優秀面表彰、種畜牡牛品評會、松蛄蜥驅除優秀面、更生部落桑田品評會、桑田耕作會、農家畜牛生飼品評會、各品表彰의 審査長으로부터 審査報告가잇는바 例年에 比하야 好成績을 나타내게되여 受賞者와 來賓一同의 拍手裏에 褒賞授與傳達式을 擧行하고이여 會長의式辭와 來賓祝辭와 受賞者總代答辭가잇슨후 午後一時에 자못盛況裡에 閉會하엿다한다

對滿輸出海產物 統制와出荷獎勵
貿易協會서善處陳情

對滿輸出에有望한 海產物에對하야 輸出統制를行하며 出荷獎勵의補助制度를 實現하는데는總督府도贊成하야 十年度豫算에 右補助額을計上하엿슴으로 朝鮮貿易協會에서는 理事會를開催하고 協議한結果 近間에總督府當局을 訪問하고 그實行에對한善處策을陳情하리라한다

自給肥料의增產
今年 堆肥六十六億萬貫 綠肥二十八億萬貫
計畫滿了、對策講究

總督府의 肥料改良增施獎勵計畫은 昭和元年부터 十個年間을第一期로하야 總額約三百萬圓의補助金을 支給하야獎勵하는바今年은그最終年인으로豫定計畫堆肥六十六億萬貫 綠肥二十八億萬貫의 自給肥料의 增產을圖하는同時에 該計畫滿了後의 獎勵에對하야目下研究中이라한다

產卵鷄의 飼料配合法

養鷄經營上 가장關係가크고 鷄의保健及生產에 直接影響이잇는것은飼料이다 이飼料의配合如何에依하야서는 優秀한素質을 가진鷄라도 本來의能力을發揮할수업슬뿐더러 種鷄의境遇는產卵障害를招來하는수도잇고 또無計畫한給與는 採算이되지안음으로養鷄家는 相當飼料의研究를하야 合理的飼養을하도록 注意하지안흐면안된다 여기에서產卵鷄의飼料配合의適合을 調査하는簡單한方法을理論은除之하고 알기쉽게記述하야보자

◇

鷄의飼養上에잇서서 가장重要한營養素는 蛋白質이다 鷄의飼料配合의標準은 이蛋白質을鷄의素質에應하야 給與하는方法이가장合理的이다 卽百%의產卵率의것에對하야서는 百%、八十%의產卵率의것에對하야서는 八十%產卵함에足할만한 粗蛋白質을含有한飼料를給與하여야할것이다 產卵率과粗蛋白質의所要量을表示하면다음과갓다

產卵率	粗蛋白質所要量
一〇〇%	二三•五瓦
九〇	二一•〇
八〇	一九•五
七〇	一八•〇
六〇	一六•五
五〇	一五•〇

▲備考=粗蛋白質所要量은 一日一羽의것

卽八十%의 產卵率을示하는鷄群에對하야서는 一日一羽當 給與量이百瓦의境遇는 飼料配合比는 粗蛋白質의含有量이 一九•五%로되게하면 合理的配合이라고할수잇다 그러나 가튼八十%의產卵率이라도 給與量이九十瓦의境遇는粗蛋白質의 含有量을 二一•七로하지안흐면 안된다

◇

그러면 現在養鷄家諸君이 給與하고잇는 飼料中에는 얼마나한 粗蛋白質을 含有하고잇는가하면 이는다음과가튼 簡單한算出法에依하야容易히 算出할수잇다 卽左表에示한 各飼料의假價格에配合率을乘하야 假價格의總計를내고이를配合率의 合計로除하야算出한商이 卽粗蛋白質量이다 이리하야 算出한數量을前記의產卵率과粗蛋白質 所要量에對照하야自家使用의 飼料配合이果然現在의產卵狀況에 適合한가엇더가를檢討하는것이다

飼料名	假價額
小麥	一四
大麥	一〇
玄米	九
小米	九
粃	七
籾米	九
裸麥	一〇
玉蜀黍	一一
粟	八
稗	八
高粱	九
芽在	一六
麩	一六
麥糠	八
米糠	一二
大豆粕	四四
澱粉粕	二一
魚粉	五〇
乾•魚	五六
菜種油粕	三三
餅粕	六五
鰯粕	五九
鰊粕	五九
蠶蛹	一六
生飴粕	一四
乾燥飴粕	三七

다음에 그計算의例를 드러보기로하자 粒餌、粉餌併用、給與量(一日一羽當)粒餌、粉餌모다各五十瓦、配合比다음과가튼境遇

粒餌	玉蜀黍	四〇
	小麥	四〇
	大麥	二〇
粉餌	麩	二〇
	米糠	二〇
	大豆粕	一七
	魚粉	一八
	玉蜀黍	二〇
	粋	二

飼料名	假價額	配合比
玉蜀黍	11 ×	60=660
小麥	14 ×	40=560
大麥	10 ×	20=200
麩	16 ×	20=320
米糠	12 ×	20=240
大豆粕	44 ×	17=748
魚粉	50 ×	18=900
粋	7 ×	5= 35
計		200 3663

3663 ÷ 200 = 18•3

이에依하야보면 粗蛋白質의含有量는 一•八三으로 右配合比의飼料는產卵率七割二分의 鷄群에適當하다

仁川과新義州의兩配肥所 操業狀況良好
日本內地보다生產費低廉

全朝鮮肥料配合所 設置에率先하야最近그新設을본 仁川及新義州配合所와 操業狀況은 大概良好하다는바 仁川配合所는 三十萬叺配合豫定의 約八割이進行되야 今月初旬까지는 全部終了될豫想이라하며 最近은畓肥料의 配合뿐인데 一日에 五、六千叺의能率을내고잇다한다 그리고新義州工場는最初는 作業이 不振하든狀態이엇스나 最近은 作業人의熟練과 機械能率의 好轉으로 一日에約五千叺의 能率을 내고잇다는데 今月中旬까지는畓用配肥二十七萬叺의 配合을마추리라한다 以上 配合肥料에 對한生產費는 一叺에八錢乃至九錢가량이라하며日本內地配肥生產費에 比하면四錢가량低廉하다는데 그低廉한原因은첫재資本家經營과가리利潤을計上하지안는것、둘재는勞賃及叺의低廉等이라한다

朝鮮各地米取 四月中賣買高

朝鮮內 各地米穀取引所의 四月中賣買高는 알에와갓다

(以下單位百石)

	總高	最高	最低	平均
朝取	二、九二四	一、六二四	三九	四六
群山	一三、六四四	一、八七六	一五三	五四〇
木浦	一三、〇六八	二三五	一四	一〇九
大邱	三、九二四	三、〇二六	一〇三	七六
釜山	四、三二六	四三	三三	一七六
鎭南浦	—	—	—	—

中國政府에서 植物檢查實施
果類輸出上朝鮮에影響

國民政府實業部 商品檢驗局에서는 四月二十一日부터 外國으로부터輸入되는 果實類、苗木及種子類 其他에對하야 植物病蟲害檢查를實施하는데 從來大量의果實類와苗木及種子를 輸出하고잇는朝鮮은貿易上 적지안흔不便이 잇스리라한다 이제그全文二十四條中外國輸入品에對한 一項을들면다음과갓다

國外로부터輸入하며、又는國內로부터 輸出하는植物及其包裝物은 그所在地檢驗局에 對하야檢查請求書에 檢查料를添付하야 그檢查를受할事、檢驗局이檢查의結果 病蟲害의存在를發見時는 그輸入輸出의停止를命하고 또此를行함을不得함

康津各種農產品評會

【康津】康津農會主催의 各種農產物品評會는 지난二十六日康津公會堂에서 開催되엇는데 受賞者를面別로보면左와如하다

▲康津面 團體賞 四點 個人賞 五點
▲郡東面 團體賞 一點 表彰者 二人
▲[illegible]面 團體賞 九點 個人賞 八點
▲兵營面 團體賞 五點 表彰者 二人
▲[illegible]面 團體賞 六點 個人賞 五點
▲道岩面 團體賞 一點 表彰者 一點
▲[illegible]面 團體賞 四點 個人賞 六點
▲七良面 團體賞 二點 表彰者 二人 個人賞 五點
▲大口面 團體賞 四點 表彰者 一人
▲[illegible]面 團體賞 三點 個人賞 二點
▲鵲川面 團體賞 二點 表彰者 二點
▲城田面 團體賞 一 表彰者 一人
▲[illegible]面 團體賞 八點 個人賞 五點
▲鵲川面 團體賞 二點 表彰者 二人
▲[illegible]面 團體賞 四點 個人賞 二點

이外에 優勝旗는[illegible](城田面)이라고한다

東洋工業會議開催
朝鮮滿洲中國에서
日中關係好轉一助

【東京電話聯合】日中關係改善에 向하라는이때 最近日中兩國學界及 政府側의工業에關한 權威者를中心으로 上海를 비롯하야中國、滿洲、朝鮮의 各地十一個所에서 東洋工業會議를열고 工業技術을通하야 立場에서 日中關係 好轉에더욱加勢하라는 企圖가 實現될모양이다 卽田中館愛橘博士를理事長으로한社團法人工政會에서는 主催者東洋諸國의工業的提携를目的으로東洋各地에서東洋工業會議를열라고昭和八年東洋工業會議事務局을 組織하고 着着그準備에着手하든바 今年初에 有吉公使、蔣介石氏會見以來 急角度의日中關係好轉으로그機運이 圓熟하야大體今秋十月頃에열게될可望이잇게되야 工政會海口主事는 二十八日長崎出帆의連絡船으로渡中

南京 政府當局과 會議日字며 여러가지로 協議키로엇다 右會議出席代表는 各地의政府와民間의工業關係技術者、學者等이意見을交換하고 度量衡試驗機關의共通規則制定 工業技術을 協議하는外에 各國工業專門家가 參觀하고 專門家會議、工業博覽會와上映等이 잇슬것으로

日本 側出席者는 目下 外務、陸軍、商工、遞信、鐵道、拓務 各省과 各府縣 商工會議所等으로 된 聯合委員會에서 詮衡中인데 田中館愛橘博士를 團長으로 井上匡四郎氏、加茂正雄博士外 各官廳技術關係部局長 大學教授新聞

代表 者等斯界의 權威者約二十名을 公式會議代表로 보내고 먼저第一回會議를 上海에서 그다음에 南京、靑島、濟南、天津、北平、大連、奉天、新京、哈爾濱、京城의 十個所에서 모두 一日乃至五日의 豫定으로行하야

今秋全州邑에서 產業共進會開催

【全州】오는十月一日부터府制實施가된全州邑에서는 方今府施政工作進行에 各方面으로大活動을開始하여오는바 全州邑과商工會議所에서는 이機會에產業共進會를開催키로方今準備에奔忙中이라고한다

昨年末未處分鑛 一萬七千餘件
許可其他處分一千八百餘件

昭和九年度鑛業出願件數는 九千四百四十七件에 達하는바 昭和八年末까지의 未處分件數 一萬百十六件을 合計하면 一萬九千五百六十三件인데 九年中에總督府鑛山課受理한것은 許可件數가 一千三百二十二件 其他處分件數七百五十五件 計一千八百八十七件이고 九年度末까지의 未處分件數는實로 一萬七千七百六十六件이나 山積되어잇다한다

守山穀檢出張所落成

【守山】穀物檢查所守山出張所新築落成式은 지난四月二十六日에盛大히擧行되엿다한다

日本人絹輸出旺盛 英國側對策을講究
東洋市場을빼아스라고

【東京電話聯合】日本人絹工業의躍進은 그製品의人絹織物輸出旺盛으로因한것인데 近年의 輸出織物은 歐洲先進國에도 輸出이殺到되고잇다 그래서 歐洲諸國의人絹工業은 逐年衰退의 傾向임으로 그挽回策을考究中이든바 十五日着情報에依하면 英國의人絹業者는同國의人絹工業衰微는 輸出不振으로因한것이며 그回復策은 먼저 東洋市場의奪還에잇다고 이번의 英國마체스타紡績과 染織業者、輸出業者와 코츠人絹會社等을 中心으로 輸出織物의標準을 定하고 그輸出織物은 大衆用製品으로할 可能한大衆製品으로 決定하고 過般以來着着準備中이다 따라서日本當業者는이번의英國東洋市場奪還策에對하야注目을끌고잇다

濠洲에서緬羊 二千六百頭
今秋까지에雄基到着

南棉北羊事業의 緬羊增殖는今年은東拓에서 二千六百頭를 濠洲에서購入하기로되어 同社中野技手는九日神戶出帆南行의 途에登하얏는데 第一回는六月上旬一千六百頭、第二回는 八月下旬千頭를特別運送船으로 雄基에陸揚할豫定이다

羅津大倉組勞働者 共同貯組創立

【羅津】羅津大倉組配下中原事務所에서 勞働하는人夫는 거의南朝鮮에서온 單身勞働者인데 하로에五、六十錢의賃金을바다 그날그날을生活하는者로 不意의患이잇서도 그救濟할方法이업슴으로 事務所柳震杰氏는 自己의私財를 補助하야 共同貯蓄組合을組織하야 相救患難하는同時에 組合員에게 貯蓄도 勵行하다고한다

移入稅撤廢의 時期는이미到來?
賦課의根據財政的理由解消
但財務當局은否定

總督府의 關稅收入中 移入稅額은 每年逐增하야昭和九年과가튼해는 五百三十五萬三千圓을 前年보다一割以上의增加를示하고八年度는六年度보다約二割가이의增加를示하고잇다그리고 酒類에 平均從價七分乃至八分絹織物에從價五分의 移入稅를賦課하고잇는데 賦課의根據는主로財政的理由에依한 것이나 그런데最近財界의好轉으로總督府會計도 事業官廳의增收로서九年度의剩余金도 千七百萬圓을 豫想하고잇는것과移入稅問題가 議會에서恒常問題되고잇는것으로보아 移入稅의 撤廢時期가안인가하는 質問에對하야林財務局長은如左히 否定하얏다

總督府의財政狀態가 好轉한것은 事實이나 好轉에伴하야支出도增加한다 이財源에對하야서는 亦是關稅收入도 輕視할수업다 剩餘金의問題는 主로公債의 減少에充當함이 妥當하다고 생각하고잇슴으로 아직當分은 移入稅撤廢는 實現不可能이다

義興產組定總

【義興】軍威郡義興產業組合의 第八回定期總會가 지난二十四日正午부터 當地에서 開催되야 任員을 選擧한結果 選되엿스며 郡守黃○晟氏의고사가잇슨후 同日午後五時頃無事히 閉會하엿는데 道當局의援助와新任組合長 朴氏手腕에依하야 同組合의 復興策이 講究되리라고 組合員一同의 囑望이 크다고한다

京畿道棉作擴張
昨年度부터十個年計畫으로
今年度는一萬八千三百町步

京畿道의 棉花栽培는比較的不良한歷史를가젓스나 昭和八年頃의不景氣로因하야 거의終熄狀態에이르럿든바 昭和九年度부터 十個年計畫으로 道內一萬八千三百町步의棉作擴張을 目標로着着進行中이라는데 昨年의栽培狀況은面積二千二百五十二町步、收量二百十九萬一千五百九十四斤에 達하며 段當收量도從來六十斤에不過하든것이 昨年은百斤乃至百二十斤으로 增加되야 道內棉作은前途가有望하다

河東產組定總

【河東】河東產業組合第二回定期總會를 當地廣坪沙場에서 去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開催하고 먼저會員을審查한結果總會員一千五百七十七人中一千一百十九人의 絕對多數임으로 組合長李恩雨氏가 開會辭를 宣言하고 開會辭를 맛치고 다음理事文泰彦氏의 本組合創立以來一年間 本組合生長強化를爲하여 惡戰苦鬪하여온 一年史를說始하여 事業報告及定款中若干의 變更이잇슨後 役員補選에드러가서一般投票와 詮衡委員制說이相對로하여 會場의 空氣가緊張되여가는 것을 看破하고 議長으로부터五分間休憩를 宣言하고 一般會員의對立을 援和식히여 다시續會를 宣言한後 選擧方法을 無條件的으로 議長에게 一任하엿슴으로 議長으로부터監事는 投票制로評議員은 詮衡委員制로하자는 意見이滿場一致可決되여 直時選擧하고 閉會하니 午後六時半이다 閉會後는餘興이잇섯다

▲和蘭生產狀況

和蘭工業生產不振은 別圖와가티 一九三二年에 마닥을내이고 그翌年에 多少回復하고도 一九三四年도 年平均指數는昂騰하엿다 그러나 月別指數를보면 一九三四年의後半에는다시 沈滯의傾向이 顯著하게되엇다

(國際聯盟調查一九二八年基準)

一九二九平均	一〇三•五	一九三四•五	七七•九
一九三〇平均	九五•七	一九三四•五	七九•七
一九三一平均	八〇•〇	一九三四•六	七〇•九
一九三二平均	六五•九	一九三四•七	六九•〇
一九三三平均	七四•九	一九三四•八	六七•一
一九三四平均	七二•六	一九三四•九	八二•〇
一九三四•一	七六•〇	一九三四•十	八三•七
一九三四•二	七四•七	一九三四•十一	六五•三
一九三四•三	八一•〇	一九三四•十二	七二•八

그리고前回에 和蘭의貿易一九三四年 輸入 一〇三二 輸出 七二一을 追補함

忠南서貸付한 春窮期食糧
三萬六千三百四十五石餘
回收成績이極히良好

忠南當局에서는 春窮季農家의食糧補充의 目的으로 管下各郡百七十五個邑面에對하야 道費에서三十四萬圓을貸付하고 昭和八年產正租를 同年十二月부터 九年二月까지에 購入하야 이를同年四月、五月及六月의 三個月間에 四合을 四萬五千九百二十四戶(人員二十四萬一千六百九人)에게 貸付하야 救濟하얏는바 前年十一、十二月及 今年一月의 三個月間에 一割五分의 利子正租를加算하야 合計四萬一千七百八十三石 八斗一升八合을回收하야 三萬六千三百四十五石 三斗四升 良好한成績을 擧하얏다고 한다

鮮航同盟會存續
今後五個年을延長

鮮航同盟會의存續期限은 昭和十一年四月末로되바 月卅日各加盟會社의總意로 다시三個年間延長하야 昭和十四年四月十日까지存續하고 이것을機會로 會의內容強化를圖하는外 目下의 小型船에對한 根本策을樹立키로되엇다

朝鮮紙製組合設立
資金三萬圓으로

【江景】忠南論山及全州郡山等에서產出하는朝鮮紙는每年數十萬圓의移出를보고잇는데 今般斯界의發達과 改良을目的하고 目下朝鮮改良紙製造工場을論山郡陽村面仁川里仁川堤岸에 그工費一萬七千餘圓을들여서建築하는 同時에朝鮮紙製造組合을 資本金三萬圓으로 創立하엿다는데 重要幹部는 尹吉重 趙永植 趙煥諸氏라한다

朝鮮蠶業史論
⑦……朱寬淳

第一紀 支那에서만 蠶業을經營한時期
第二紀 傳播時代(西紀元後)
第三紀 世界主要蠶業地形成期
第四期 養蠶業의世界的競爭時期

그런데 第一期記事를보면 蠶業創始時代 西歷紀元前二六〇〇年乃至二七〇〇年으로부터 西歷紀元까지의 時期는 支那特有業이엿다한다 이時期에는 生產品이 적으므로 貴族階級에만 使用되엿고 蠶種의 輸出은 嚴禁하엿스며 一般民間에서도 自由로 飼育못한 時代라한다 그러나 人類의 發達을따라 需要가 增加됨은 濟洲渚、旅行者等이 携帶하게되까닭에 傳播되엿는데 其時代는 西曆紀元後라하며 其經路는 海陸二路라한다 最初에는 西藏에 傳播하고 其後印度에 傳播한後 商貿와 布教와가티 世界的으로傳播되엿다한다 上述한바와 가티 『마리지』說을 主로하야 一般은 支那蠶業法傳來說을 無條件으로 信하나 吾人은 朝鮮에서 獨立的으로蠶業法을創始하지안헛나 하는 疑問을가지고잇다 그것은 貿易의發生은 漁獵社會로부터牧畜社會로 轉換하는 時代的產物이니 牧畜의發達로 生產과需要와의 狀態에差異가生하얏다 그러므로漁獵民族과 牧畜民族間에는 相互滿足心實現을爲하야交易行爲가 生겻는데最初에는物物交換에依하엿스나 漸次發達되여等價物인貨幣가 生기게되엿다 古代의貨幣는 大槪海產貝類中寶貝를使用하엿스나 卜辭研究(郭沫若著支那古代社會史論)에依하야 殷代에『泉布』를 農民形으로만들어『貨幣』로使用함을알게되엿스나 支那가上古時代養蠶輸出을嚴禁한原因이『泉布』를貨幣로使用한데잇슬것이다 地理上關係로支那와의交通이 他國에比하야頻繁하엿다할지나 如此嚴禁하던蠶種이 其時代에 傳來하엿다고생각할수업는까닭이다 또詩經豳風七月篇에『七月流火、八月萑葦、蠶月條桑、取彼斧斨、以伐遠揚、猗彼女桑七月鳴鵙、八月載績、載玄載黃、我朱孔陽、爲公子裳』이라하여 蠶織은公然한婦人之公事로볼수잇스나 大雅瞻卬篇中『婦無公事、休其蠶織』이라 하엿스니 養蠶은 一部專業化하엿다고볼수잇고 따라서上古時代風習이遺傳된 關係가안인가한다

그러고蠶의品種上으로보면、大體로 全然相違가 有하니『愈益期脫』에『白蘭蠶人熟』이라하엿스니 年에八回掃立蠶일것이요 또『永嘉記』에 永嘉有八輩蠶、蚖珍蠶、拓蠶、蚖蠶、愛珍、愛蠶、寒珍、四出蠶、寒蠶』이란記가 有하니 이記錄이齊民要術에 引用된것으로보면 只今으로부터 一六〇〇年(假量)以前記錄일것이니 其時代蠶의 品種일것이며 其記에 蚖珍蠶은三月績、拓蠶은四月初績 蚖蠶도四月初績(?)愛珍은五月績이라하엿스니 以上두記錄을 보고 只今廣東地方에서 飼育하는 所謂大造或은 銀種이라하야 每年八回式掃立하니 首肯할點이잇지안흔가한다 第一回掃立은 桑化造라하고 第二回를 頭造라하며 第三回를二造 第四回를三造 第五回를四造 第六回를五造 第七回를六造 第八回를 寒造라하니 以上으로보면 一年에 數回飼育함이 古來로傳하는 風習이며品種도 朝鮮三眠蠶과는 判異하다 『四時纂要』란 記錄이現存하는朝鮮蠶業記錄으로는 第一最高한것이나 朝鮮서는 古來로 一化性만 使用한것갓다

또朝鮮에는 野生絹絲虫(野生蠶)이만흐며 拓桑利用도 上古부터 傳來되엿다 古記에『拓木蚕有紋、赤可旋爲器、其葉可飼蠶』이라하엿스며 또『山中有之萬叢生幹竦而直、葉豊而厚圓而有光、其葉飼蠶』이라하엿고 또『此樹似拓而小有刺葉亦如柞葉而小可飼蠶』이라하엿스며 『蠶桑萃編』에는『生於拓樹之上不費人力云棘蠶』이라고도 하엿고 『蠶書』에『拓葉飼蠶絲作琴瑟等絃、清鳴響徹勝於凡絲遠矣』等記錄을보면拓樹에區別도하엿스며 拓葉飼育蠶絲는 利用도하엿스며 또 天然野生蠶業絲絨絲로 尊重한事로 보와서도 또는 支那에서 처음西藏에서부터 研究하지안코 斷言할수업스나 우리古代文化上으로 보와 『朝鮮의蠶業은朝鮮서創始』하엿다고봄이 正當하지 안을가한다 그러나疑問만은後에남겨둔다

그러면 朝鮮蠶業의 發源地는 어면가라는 疑問이나다 『三國遺事』에『[illegible]』라하엿고 또或者는 朝鮮은 [illegible]니 因水爲名이라 하엿스며 國家를『나라』라함은 우리 古語의『라라』일것이니『라라』는 [illegible] 語源을보면 河畔에根據를定한 疑心할餘地가업다 洋의東西를勿論하고 古代民族의 文明發源地가모다 河畔이엿다 이런一定한 方程式에依하엿슴은 現代人의常識의 하나이다 따라서우리朝鮮民族도 물론여기에 方程式에依하엿다고 推理할수잇다 그러면우리의文明은 松花江、遼河、鴨綠江、大同江、漢江、洛東江、豆滿江等의 河畔에서發生하엿슬것이다 그런데 우리古語에開拓한野地를『벌』이라 하는바 哈爾賓古名이『夫餘』라하니 最初來經路와또는 古書로參考하면疑心할餘地가업다 그러나 某時代는 漁獵과牧畜의全盛時代니 移動的生活形式에 依한時代라볼수잇는고로 養蠶業은發達치못하엿을것이다 이地域一帶土質은 黃土質인故로 古代民族의 根據地로는 永久性을가지엿고 古代蠶의一部엿다 그럼으로 最初養蠶地로 볼수잇지안흔가한다 古史에『五德地』『五備地』『安地忽』『安市城』으로 記한것이 今海城蓋平等地라하며(申采浩說)蓋平은古書로『알티』라하니 只今의安市故城가古朝鮮根據地가 아닌가한다 또古來로蓋平等地는 優秀한天蠶地帶일것이다 古記에 平壤은 大同江河畔이니 『百牙岡』이라하며 仙人王儉之宅이라하는 最古의古都니 人口의 調密도 養蠶發展의 一要素며 古代의 絹織物은 支配的階級에서專用되엿다는것으로 其附近一帶가繁하엿스리라는 點으로보던지或은 古代民族이 執着하던黃土質이라는것으로보던지 또는우리古族의 文明이 急激한發展을한地城이라는 點으로보던지 疑心할餘地가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第一問題되는것은 年代라할지니 三國遺事에『與高同時』라하엿고 또『唐堯即位五十年』이라하엿는바 이것은 檀君紀元이라 支那의 三王은『夏의禹王』、『商의湯王』、『周의文王』이라하엿는데 商의湯王은契요帝嚳의子라한다 그런데 五帝에對하여는 漢代史家들間에도 問題되어잇스니 例를들어보면

一、『太昊、神農、黃帝、少昊、顓頊』이라함은 漢代末의史家『馬融』의撰『禮月令』篇에보이며

二、黃帝、顓頊、帝嚳、帝堯、帝舜』이라함은漢代學者『戴德』이撰한『大戴禮』에보이고

三、少昊、顓頊、帝嚳、帝堯、帝舜』이라함은 漢의太史公『司馬遷』이撰한『史記帝王世紀』에보이다 그런데『郭璞』이란史家는『山海經』의『大荒東西南北經』을主로하야帝俊이帝舜이라하고 또『王維國』은『先公先王考』와其續編에『帝俊은帝嚳』이라하엿스며 郭沫若氏는『甲骨文釋』의『觀祖妣篇』과『支那社會古代史』에殷虛文字卜辭를引用하야『高辛은帝嚳며帝舜이라』하고 其時代는二頭政治時代니『帝堯』와『帝舜』은初代의二頭요 帝堯와帝舜은次代의二頭요『帝舜과夏禹』는三代의二頭라考證하엿스며 또有娀氏와娥皇과도 關聯된다고論하엿다 그런데古史에殷代開國之祖契는帝嚳之子라하엿고 또史記에『殷簡狄有娀氏女見玄鳥卵吞之生契』라고잇스며『祭法篇』에『殷人、禘嚳而郊冥、祖契而宗湯』이라하엿스니 上述한記錄을總合하여보면 古史의『夏商天子二十七世凡四百五十八年』이란記事는信用할수업게된다 따라서 檀君年代에도 疑問이생긴다

또古史에『殷帝天子二十一世六百四十四年』이라하엿스나『古本竹書紀年』에는『湯滅夏以至于紂二十九王用歲四百九十六年』이라고 [illegible] 傳하니 檀君年代에도여러가지 疑問이생긴다 支那에서도 只今으로부터二千七七五年前 周宣共和以後에일이나 上古年代에對하여는 專門史家도 意見이區區하니 우리가 第一根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檀君年代考證이 相當히困難하여진다 이것은 不可能에갓가운일이다 그러나 前述한支那史家의著述 契의父는 帝嚳이라는 高辛이요 帝嚳와 舜帝는同人이라는 記錄을 前提로하고 [illegible] 三千五百年前에는 養蠶을 하엿스리라고 推論할수잇다 [illegible] 其著『新撰日鮮太古史』에 [illegible] 이記錄으로보아도 大略짐작되지만 正確한年代는 좀더 깁히研究한다하드래도 그것은 海中撈月과가튼結果밧게엇을수업을것이다 그러나 以上과가튼 槪念으로 其大略을 알수잇다

우리는 以上研究를 通하야 朝鮮의 蠶業은 野蠻的時代 卽牧畜을主로한 時代에 自然發生的過程으로 發展을 始作하엿스나 品質이 良好한結果 其時代纖維工業에 一大變革을주어 漸次意識的目的으로 河畔一帶를中心하고 發展을하엿스나 鐵의發見에 依한 農業文化의 燦爛한 光輝는 一層더急速하게 蠶業을 民間職業으로 普遍化식혓는데 其初期末頃에는 大同江河畔이 最盛의 養蠶地帶엿다』라는 結論을엇게되엿다 그러면 漸次全鮮에 發展을하엿슬 것인데 그狀況은 엇더하엿는지 記錄이 無함으로 疑心할 餘地가 업다 古朝鮮의 制度가 三頭政制엿다 함은 數字的으로는 알길이업다 古朝鮮의制度가 三頭政制엿다함은 上述한바나 時代의經過와民心의變遷에依하야 上述한바와가치『若醯論地』란 信條가잇섯스나 古朝鮮疆域에도 分立의悲運을갓게되엿스니 이것은主로支那 戰國時代群雄割據의 影響일가한다 魏略에『箕子之後朝鮮侯見周衰燕自尊爲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爲王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大夫禮諫之乃止使禮西說燕以至之不攻』이라함이 이事實을明證함이니 一國의動搖分立은 一朝一夕之事가아니다 따라서 蠶業도衰亡의 悲運을갓게되니 나는 이期間의 約二九〇年間을蠶絲業의 第一衰亡期라稱한다 卽三朝鮮이分立하던 周愼王四十六年頃부터 箕準의南遷으로馬韓을開國하던間의 二百六十七年間과 三朝鮮分立初動搖時代를 合한期間이 第一衰亡期에 當하리라고推理한까닭이다

그러면 우리古代에 蠶絲業은 相當한全盛域的發展을 하엿스며 相當한盛況을보왓스나 西紀四世紀前群雄의 武力爭鬪의影響을바더 非常히衰亡하엿다(以上簡單하나太古期前半의 蠶絲業은大略論하엿스니 章을곳처 三韓時代의蠶業을 一瞥하여야한다)

第三章 三韓時代의蠶業

三韓이라함은馬韓、辰韓、弁韓이니 大體로보면 只今으로부터 二一二六年前『箕準』이金馬郡韓城을攻破하고 自立하야 韓王이라稱하고 龍華山城에定都하야馬韓國을建設하던때부터 始作되야 徐羅伐建國即 只今으로부터 一九九〇年前四月에 楊村山人『蘇伐居世』가 辰韓始林城(今慶州)에 定都하던以前의 朝鮮을말함이다 그러나馬韓은 溫祚王二十七年에百濟에합한바되니 西歷一〇二年이나되다 實質上으로보면 辰韓과弁韓은 獨立國이아니니 그것은 三韓을채우기爲하야 馬韓이自己領地를分割하야 辰韓弁韓에준것이라고생각된다